

중국 서적의 인용과 지식의 수용: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박영순(국민대)

I. 시작하며

중국의 명·청시기는 출판업이 성행함에 따라 대량의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지식을 보관하는 장서가와 지식을 판매하는 서상도 생겨났다. 절강, 강소 등 강남지역과 북경의 유리창이라는 지식의 전파통로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서적들은 국내를 넘어 조선으로도 유입되었다. 유입방식은 주로 중국 조정에서 하사하거나 역으로 조선에서 하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사행, 역관 및 거간꾼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국 서적의 유입으로 주자학, 고증학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다.¹⁾

이렇게 유입된 중국 서적은 대부분 국가 통치를 위한 유가류, 성리학 서적 및 문인들의 시문선집이 주를 이루었지만,²⁾ 실학, 박학과 관련한 지리서·필기·유서·소품(小品) 등의 서적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양란과 민란을 거친 조선의 정치적 변동은 성리학적 인식의 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외부의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8, 19세기 조선은 주자학 외에도 민생을 위한 실용과 경제에 치중하는 학술풍조가 등장하면서 명·청으로부터 많은 학술과 서적이 유입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실용적, 박학적 지식과 정보를 담은 명·청대의 필기류, 유서류 등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서적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수용·축적해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 대표적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백과사전식의 필기류 문헌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峰類說)》, 이익(李瀾, 1629-1690)의 《성호사설(星湖僊說)》 등의 일종의 조선시대 ‘백과사전식’의 저서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 후 19세기에 들어 명·청대 고증학, 박학과 관련한 필기류, 유서류 등의 서책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이하 《오주연문》으로 약칭)이다.³⁾ 《오주연문》은 조선의 서책 가운데 《지봉유설》, 《성호사설》, 조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아 전대의 박학적, 실학적인 성향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서적보다 더 많이 인용한 것은 중국서적이다. 《오주연문》에서 인용한 중국 도서는 약 85%이상을 차지하며 그 가운데 명·청대 서적이 약 49%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필기류, 유서류의 서적이 대량 인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중국 서책의 유입, 지식정보의 수용, 관련 저서의 출현 등으로 볼 때, 중국의 서적과 학문이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주목할 만한 연구대상이 된다. 당시 선진문물의 매개체로 여겼던 중국 서적이 어떻게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고대 한중 지식교류사 나아가 동아시아 지식교류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라고

1)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201쪽.

2)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222쪽.

3) 이규경의 현존하는 저작은 《오주연문》 외에도 《오주서종》·《오주서종박물고변》(《오주연문》과 합본하여 영인) 및 시화를 수집 정리한 《시가점등》 및 편저 《소단천금결(騷壇千金訣)》이 있다.

생각한다.

《오주연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90년 중반 정도부터 시작되었다. 크게 생애연구를 비롯하여 이규경의 사상과 학풍, 《지봉유설》《성호사설》과 《오주연문》의 비교연구, 찰기의 특징 등 비교적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⁴⁾ 《오주연문》의 방대한 편폭과 다양한 내용 등에 비해 연구 수량과 시각의 다양성은 더 보완·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가운데 《오주연문》에 수록된 중국서적이 약85%를 차지하는 점에 비해 중국서적의 인용과 《오주연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최근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의 박사학위논문은 방대한 자료와 자세한 분석으로 《오주연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분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국 서적의 인용에 대해 개괄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위의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오주연문》에 인용된 중국 서적의 수용과 특징에 집중하고자한다. 중국 서적의 인용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오주연문》과 어떤 연계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주연문》의 중국 지식수용과 이규경의 학문지향 등을 파악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 서적의 인용, 《오주연문》의 지식의 재생산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방식, 이규경의 학문적 지향성을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크게 《오주연문》의 체례와 특성, 서적의 수입 경로와 《오주연문》의 명·청 서적의 인용양상과 특징, 《오주연문》의 중국 지식의 수용과 이규경의 학문적 지향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⁵⁾

II.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체례

이규경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字) 백규(伯揆), 호(號) 오주(五洲)이다. 이규경의 조부는 정조때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이었던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이며, 부친 이광규(李光奎, 1795~1817) 역시 규장각 검서관이었다. 이규경은 21세 1808년(순조8)에 규장각 검서관에 응시했지만 낙방을 했고 그 후로도 두 차례 더 응시했지만 역시 떨어지고 말았다.⁶⁾

《오주연문》이 최초로 발견된 때는 1910년대이다. 당시 육당 최남선(崔南善)은 고문헌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권보상(權輔相)이란 사람이 광교(廣橋)근처 군밤장수로부터 입수한 《오주연문》의 고본(孤本)을 입수하였다. 그 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1부를 필사하였고, 고전간행에 종사하던 대동(大東)출판사에서 경성제국대학의 판본을 1부를 더 필사하였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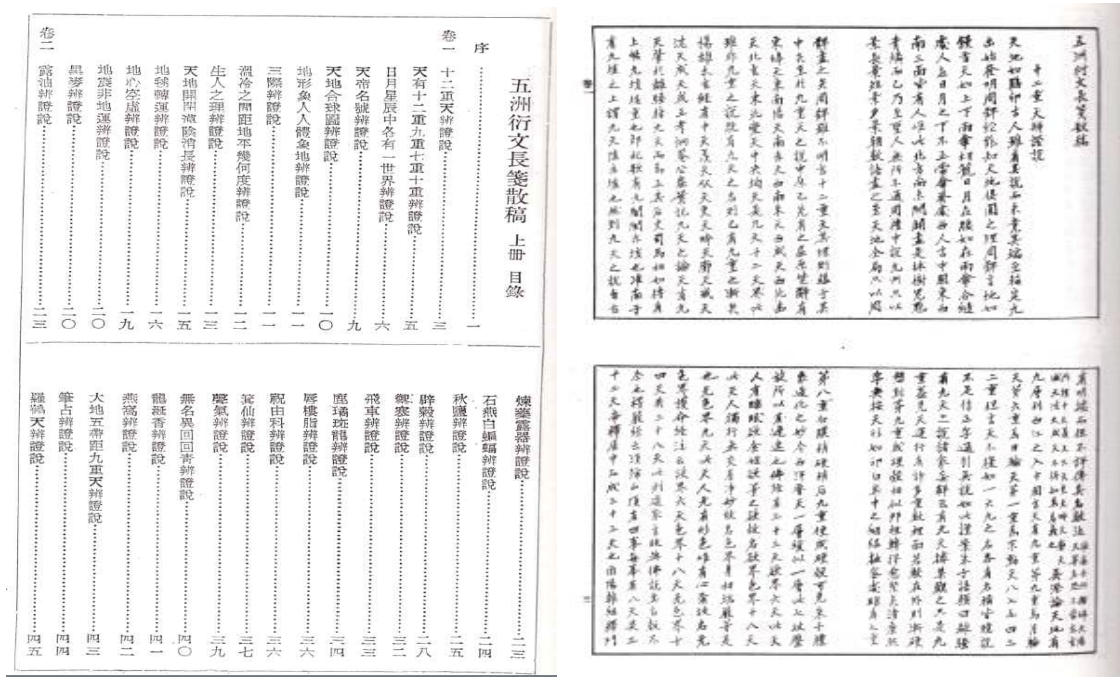
4) 관련 논문으로 박상영·안상우, <五洲李圭景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2008, 제31기.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013, 제31집.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2004, 제98집. 신병주,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오주연문장전산고>, 《진단학보》, 2014, 제121집. 김채식,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저술성향과 비교검토>, 《동아시아고대학》, 2011, 제26집.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智水拈筆》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2005, 제36집.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5) 이 글의 커다란 의도는 조선 후기 중국 서적이 어떻게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 지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해 고대 한중 지식교류사의 일면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주연문》이 조선후기 백과사전식의 저서 가운데 중국 서적이 가장 많이 인용된 점을 감안하여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또한 《오주연문》이 인용한 중국 서적(85%정도) 가운데 명·청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고(중국 서적의 약 49%), 시기적으로 조선후기와 밀접하므로 주로 명·청서적의 인용 상황을 위주로 분석한다.

6) 이규경의 생평에 관해서는 박상영·안상우, <五洲李圭景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2008, 제31기 참조.

1959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판본으로 동국(東國)문화사에서 영인하게 되었다.⁷⁾ 그 후 약20년이 지나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1977부터 1981년 동안 《오주연문》 중에서 <경사편(經史篇)>을 번역하였고 1982년에는 <인사편(人事篇)>을 번역하였다. 그 후 한국고전번역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감과 DB작업을 진행하였다.⁸⁾

1959년 동국문화사에서 영인한 《오주연문》의 모습을 보면, 1416개의 '변증설'을 60권으로 묶을 때, 각 권 안의 '변증설'은 서로 일정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류체계가 일정치 않다.



1959년 동국(東國)문화사 영인본 형태(상하 1,2권)

이러한 책을 2001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은 이익 《성호사설》의 체례에 따라 <천지편(天地篇)>·<인사편(人事篇)>·<경사편(經史篇)>·<만물편(萬物篇)>·<시문편(詩文篇)> 등 5편으로 나눈 후, 다시 23개 류(類)와 176개 항목, 1416개 변증설로 세분화하였다.⁹⁾ 이러한 작업을 거쳐 재구성된 체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오주연문》의 분류체계¹⁰⁾

- 7) 신병주, <조선 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오주연문장전산고>(<진단학보> 121, 2014),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등 참고.
- 8)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사이트는 원본과 일부 번역본을 공시하고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
- 9) “본 DB의 분류 목차는 고전간행회본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1977년에 분류한 5편 23류 176항의 체계를 따랐다.”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오주연문장전산고 교감 및 정리사업 종합보고서>(2005년 12월) 참조. 물론 《성호사설》을 기준으로 하여 《오주연문》의 원본을 재분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의 및 분류 과정에서 오류도 피할 수 없지만, 《오주연문》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따르지는 않는다.
- 10)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편	류	항목 ¹¹⁾	항목/변증설
천지편 (224)	천문류	天文總說(15) 日月星辰(27) 風雲雷雨雹虹(9) 災異(9) 曆象(23) 節候(9) 干支(2) 天文雜說(5)	8/99
	지리류	地理總說(14) 山(8) 泉井(2) 河(1) 島(1) 浦(1) 潮汐(1) 水土(11) 火(2) 石(11) 金銀銅鐵珠玉(9) 琉璃(1) 邦國(15) 人種(7) 州郡(7) 洞府(8) 城郭(2)	17/101
	천지잡류	地理雜說(3) 天地雜說(3) 鬼神說(18)	3/24
인사편 (698)	인사류	身形(20) 性行(11) 氏姓(8) 稱號(6) 諡號(1) 壽夭(3) 乖常(4) 疾病(3) 子孫(1) 攝生(2)	10/59
	논학류	心性理氣(14) 爲學(15) 格言(5) 經世之學(5) 博物(9) 儒行(11)	6/59
	논예류	論禮總說(2) 喪禮(12) 追尊(2) 神主(2) 墓冢祠碑(6) 祭禮(5) 嫁娶(5) 壽禮(1) 拜禮(1) 論禮雜說(6)	10/42
	치도류	治道總說(2) 賄遺(3) 培剋(1) 朋黨(2) 官職(14) 科舉(9) 儀仗(1) 印符(6) 牌牘文簿(3) 年號(2) 帝號(1) 學校(10) 祀典(7) 田制(5) 勸農(6) 水利(3) 賦役(2) 糶糴賑恤(3) 奴婢(3) 戶籍(1) 貨幣(6) 理財(2) 漕運(2) 場市(3) 榷煙(1) 法律(3) 刑獄(4)	27/105
	복식류	服食總說(1) 衣服(4) 布帛(6) 裘毛(1) 首飾(3) 染料(3) 帷帽(1) 皮靴(1) 冠巾(7) 杖履(5) 眼鏡(1) 扇(1) 茶煙(5) 香油(11) 飲食(1) 麪粉(2) 油醬(5) 鹽(2) 諸膳(18) 酒麵(24)	20/102
	궁실류	宮室(7) 壁瓦(3)	2/10
	기용 (器用)류	舟車(19) 樂器(8) 兵器(14) 電話機(1) 生火機(2) 度量衡(9) 織具(3) 羅針(5) 文具(10) 農具(11) 漁具(1) 什物(10) 燈燭(7) 柴炭(2) 鏡(1) 鐘漏(7) 陶瓷器(5) 雜器(9)	18/124
	기예류	算數(8) 醫藥(68) 書畫(28) 陰陽(23) 卜筮(24) 堪輿(15) 射藝(1) 雜技(30)	8/197
경사편 (238)	경전류	經典總說(5) 易經(12) 書經(5) 詩經(2) 禮經(9) 春秋經(3) 論語經(3) 爾雅(1) 中庸(1) 大學(1) 樂(9) 小學(1) 訓詁(2) 字書(15) 韻書(5) 經傳雜說(3)	16/77
	도장류	道藏總說(1) 道藏雜說(14)	2/15
	석전류	釋典總說(1) 釋典雜說(14) 道釋雜說(1) 西學(1)	4/17
	사적류	史籍總說(2) 史籍雜說(10)	2/12
	경사잡류	經史雜說(2) 其他典籍(22) 典籍雜說(8)	3/32
만물편 (200)	논사류	論史總說(1) 論史(36) 人物(33) 風俗(15)	4/85
	초목류	花草(9) 穀種(17) 菜種(11) 樹木(10) 果種(9)	5/56
	조수류	鳥(22) 獸(41) 鳥獸雜說(5)	3/68
	충어류	蟲(20) 魚(34)	2/54
시문편 (56)	만물잡류	草木鳥獸蟲魚雜說(12) 萬物雜說(10)	2/22
	논시류	論詩(21)	1/21
	논문류	論文(9) 小說(3) 文字(23)	3/35

<표1>에 근거해볼 때, 《오주연문》의 내용은 5편 가운데 인사편(69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사편(238), 천지편(224), 만물편(200), 시문편(56) 순이다. 대략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지편은 천문류와 지리류로 나눈 후, 천문·재앙·역법·간지·절후 및 산하·수토(水土)·불·돌·성곽·방국(邦國)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인사편은 인사류·논학류·논예류·

11) ()안은 ~변증설 수를 말한다.

치도류·복식류·궁실류·기용류·기예류 등 8개 분류하였다. 인사류는 성씨·칭호·시호·질병·접생 등 생활과 관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논학류는 심성이기·학문·경제학·박물·유행(儒行) 등 담론적 성격을 띠며, 논예류는 상례·제례·신주·배례 등 전반적인 예에 대해 다루었다. 치도류는 연호·제호·관직·봉당 등 정치관련 내용, 화폐·이재(理財)·시장 등 경제적인 내용, 과거·학교·사전(祀典) 등 교육내용, 법률·형옥·수리·권농 등 전반적인 법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복식류는 의복·장식·포백 등의 내용과 안경·부채·다연(茶煙)·주면(酒麵)·장(油醬)·향유(香油) 등 일상생활용품 및 식품에 관한 내용들이다. 기용류는 선박과 수레·악기·병기·도량형·나침과 문구·농기구·어구(漁具)·도자가 등의 기술과 도구를 활용한 과학기술관련 내용들이다.

둘째, 인사편 가운데 기용류(124), 기예류(19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도류(105)와 복식류(102)가 가장 많은 것은 이규경이 18, 19세기 이후의 실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예류는 소분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사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109)을 담고 있다. 특히 산수·의학·음양·복서(卜筮)·감여(堪輿, 일종의 풍수지리)·서화·잡기 등으로 나누어 《주역》의 음양사상·의학·예술 등의 면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109개 변증설 가운데서 특히 의학(68)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오주연문》이 인용한 중국 서적 가운데 《본초강목》(109회), 《물리소지(物理小識)》(221회), 《오잡조(五雜俎)》(130회)의 인용횟수가 1위~3위를 차지한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규경의 박학, 명물(名物), 실용적인 학문적 취향을 잘 보여준다.¹²⁾

셋째, 경사편은 인사편 다음으로 많고 특히 경전류(77)가 가장 많은 것은 이규경이 비록 박학의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자학에 대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전류 안에서는 주자학 외에도 도교·불교·서학 등에 관한 언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사상적·학문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여준다. 넷째, 만물편(200)은 초목, 초수, 어충류에 관한 잡다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시문편(56)은 다른 4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유는 이규경이 시화를 별도로 뽑아서 엮은 《시가점등(詩家點燈)》이라는 거대한 저술이 별도로 있어서 중복을 피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규경의 실용적인 학문적 취향으로도 보아도 문학류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야말로 백과사전식의 천지·인사·경사·만물·시문 등 다양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와 내용을 통해 볼 때, 《오주연문》의 내용적 성격과 이규경의 학문적 성향은 박물학적 특징을 띠고 있으며,¹³⁾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물에 대한 탐구로 체현되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서>에서 말했듯이,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이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폐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였다.¹⁴⁾ 이와 더불어 <표1>경전류에서도 주자학 외에도 도교·불교·서학 등에 관한 언급도 적지 않음 점으로 보아, 그의 학문적 취향

12) 편과 류는 이규경의 대체적인 학문적 취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오주연문》의 구체적인 성격과 특징은 항목과 그 속의 변증설에서 더 잘 드러날 것이다. 본고는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있으므로 일부를 제시하지만 보다 자세한 분석은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

13) “나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張茂先과 李石의 학문을 가장 좋아하여 자못 힘써 모으고 찾아 몇 편의 자료를 완성하였다. 스스로 대단한 작품인 양 만족하여 소중히 간직하여 둔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그 후 잊은 듯이 버려두어 내가 쓴 책이라는 것마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五洲書種博物攷辨序> “余不佞自勝冠，最好張茂先李石之學，頗力蒐索，滙成數編，自託以吉光片羽，秘諸枕中者，已踰數紀，自茲以往，棄之若遺，仍忘不記爲吾書也.” 그러나 《박물지》의 인용회수(4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은 한때 젊은 시절(“성인”)에 박물학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문》의 성격과 이규경의 학문적 성향을 파악하려면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013을 참조.

14) “대체로 명물도수의 학술이 설사 성명의리의 학문에는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또한 내버려두어 강론하지 않아선 안 된다. 大抵名物度數之術，縱不及性命義理之學，亦不可偏廢不講.” <五洲衍文長箋散稿序>

은 심성 중심의 성리학적 사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경제에 기반 한 박물학적, 명물학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물’의 ‘명’은 이름, ‘물’은 그것의 구체적인 형상 즉 물건 또는 물건의 종류를 가리킨다. ‘도수’란 규정, 또는 제도 등을 말한다. 즉 ‘명물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세상 모든 것(‘물건과 제도’)들에 대한 학문적 탐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일반적으로 성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박물학 또는 명물학은 마음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외물을 탐구하는 ‘완물상지(玩物喪志)’의 학문으로서 인간 내면의 심성도야에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명물학은 성리학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물학은 18,19세기 조선의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되었다. “명물학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외부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인간 내면의 탐색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그간 외부 대상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18세기에 들면서 그러한 외부 대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한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비록 개념 규정은 어렵지만 명물학이 19세기 중반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분명하다.”¹⁶⁾ 한편, 중국 명말청초에 들어서 ‘물’에 대한 관심은 명물고증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명물고증학은 성리학의 강력한 도학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다.¹⁷⁾ 즉, 《오주연문》의 역법·지리·제도·천문·무기·기구·초목·광물·의학 등은 일종의 명물도수에 관한 것들이며, 이를 변증·고증방식으로 기록하여 명물고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규경의 학문적 취향은 실학사상이 외연 확대하여 박물학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명물고증학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대에 유행한 경제적 학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Ⅲ. 서적의 유입과 인용

1. 서적의 유입

한국고전번역원의 교감기(校勘記)에 따르면 《오주연문》에 수록된 내용의 서적은 약600여 종이며, 명·청대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서적의 저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특히 명대는 강소, 절강(상해 포함), 강서 등의 지역이 약60%를 차지한다.¹⁸⁾ 이유 중의 하나는 강남지역이 출판업의 활약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출판업은 당·오대부터 북송 초기에는 촉(蜀, 四川) 지역이 출판의 중심지였다가 남송에 이르러 “항주가 으뜸이며, 촉본(蜀本)이 그 다음이고 북경본이 가장 아래가 되었으며”, 명대 가정(嘉靖) 연간에는 “소주·상주(常州)가 최상이며, 남경이 그 다음이고, 항주가 다시 그 뒤를 이었다.”¹⁹⁾고 한다. 중국 강남 지역의 출판업이 성행함에

15) 명물고증학과 관련한 연구 논문으로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2004, 제98집.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참조.

16) 정민, <18세기 지식인의 玩物 취미와 지적 경향- 經과 綠鸚鵡經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3, 2003,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참조.

17) 벤저민 엘먼 저, 양희웅 역,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 166~167쪽.

18)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203-212쪽 참조.

19) 섭몽득(葉夢得) 《석림연어(石林燕語)》(권8) “今天下印書, 以杭州爲上, 蜀本次之, 福建最下.” 호응린(胡應麟) 《경적회통(經籍會通)》(권4) “余所見當今刻本, 蘇常爲上, 金陵次之, 杭又次之.”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오오키 야스시 지음·노경희 옮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참조.

따라 당시 조선에서도 강남 지역을 서적의 보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규경의 조부 이덕무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말했다.

“관상권(觀象圈)을 지나 순성문(順成門)으로 나와 유리창에 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책방 서너 군대를 들렀다. 도씨(陶氏)의 소장본은 매우 훌륭했는데 오류거(五柳居)란 현판을 걸었다. 도씨는 ‘책을 실은 배가 강남에서 와서 통주 장가만(通州 張家灣)에 닿았는데, 내일이면 그 책을 이곳[유리창]으로 수송하여 올 것이고 모두 4천여 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서목을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 거기에는 내가 평생 동안 구하려 하던 책뿐만 아니라 천하의 기이한 모든 책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비로소 절강이 서적의 본 고장임을 알았다.”²⁰⁾

강소, 절강 지역이 중국의 서적과 지식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한 점은 중국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 역대 장원의 지역별 분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드러난다.²¹⁾ 청대에 이르러서도 강소, 절강 지역의 기능은 여전했지만 명대에는 없던 북경 지역이 크게 서적과 지식 교류의 장으로 떠올랐다. 청나라 수도 북경 내부(內府)에서 영인한 서책과 항주와 북경을 잇는 운하를 통해 대량의 서적이 북경으로 집적되어 조선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처럼 18, 19세기 당시 중국 서적은 강남 지역, 북경의 유리창을 통해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주자학, 고증학 학풍도 자연스럽게 조선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서적들의 유입된 주요 경로는 대략 중국 조정의 하사, 사행(使行), 거간꾼, 역관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²²⁾ 대표적인 유입 창구는 유리창이었다. 일반적으로 벼슬을 하는 일반 사대부일 경우는 사행, 역관, 거간꾼, 지식인간의 교류 등의 방식으로 서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규경은 조부 이덕무, 부친 이광규를 이어 가업으로 내려오던 규장각 검서관에 3번이나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하여 포의(布衣) 신분으로 살았으니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던 조부 이덕무와 부친 이광규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이며, 이외에도 교분이 있었던 최한기, 서유구 등의 교류를 통해 중국 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³⁾ 따라서 이규경은 관심 있는 책을 만나기만 하면 늘 베껴놓는 습관이 생겼으며 이는 그들 집안의 가업의 특징이기도 했다.²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던 이규경은 《오주연문》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변증하고자 할 때 다양한 서적에서 유관 자료를 인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증자료로 조선의 서적은 물론, 명·청시대의 방대한 서적,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 및 일본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20)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67권 <입연기 하(入燕記 下)>.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재인용.

21) 관련된 내용은 梅新林, 《中國文學地理形態與演變》, 復旦大學出版社, 2006, 134-165쪽. 胡兆量等, 《中國文化地理概述》, 北京大學出版社, 2009, 170쪽을 참조.

22)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欽英과 齋亂藁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010, 제30집.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등 참조.

23) 신병주,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오주연문장전산고>, 《진단학보》, 2014, 제121집, 128쪽 참조.

24) “생각해 보면, 나의 조부 청장공(이덕무)은 손수 천여 권에 달하는 책을 초록하셨다.……기타 이것저것 초록하여 축을 이룬 것이 십여 아람이나 되며, 권수로 계산하면 백여 권을 밑돌지 않는다. 거의 고금을 통해 드문 일이다. 정조의 명을 받아 책을 엮어 그 필적이 내부에 남아 있으며 백여 편이 넘는다. 우리나라가 책을 초록한 이래로 이렇게 성대한 적은 없었다.恭惟我王考靑莊公, 手抄書幾千餘卷……其他雜抄成軸者, 又爲屢十圍, 若以卷數計之, 不下爲百許卷, 殆古今所罕有也. 正廟朝承命編書, 筆跡之在內府者, 亦不下百許編之多, 則自東方抄書以來, 未有若斯之盛也.”(<鈔書辨證說>) <~辨證說>은 모두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내용이므로 일일이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

《오주연문》은 <표1>에서도 나타나듯이, 성리학과 경전류 등에 관한 자료도 인용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현실에 필요한 경제를 위한 실용류, 박학류의 서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동시에 중국의 서적을 두드러지게 많이 인용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했다. “명물도수의 학술이 설사 성명여리의 학문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버려두고서 강론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이 이를 말해준다. 심지어 조선의 문인들이 성리학적인 인식에만 머물러서 조선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세계의 변화에 대해 무지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대개 중원의 문인들은 박물학을 버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칭 붓을 잡는다고 하는 이들은 격물학을 내버려두고 심지어 속맥도 구분하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자칭 학문이 하늘과 사람을 통달하였노라고 말한다. 아, 이것은 어떠한 학문인가?”²⁵⁾

여기서 이규경이 말하는 격물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사상적, 관념적인 ‘격물’이라기보다 실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중시한 ‘박물’의 의미와 유관하게 쓴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그의 학문적 취향이나 가학의 영향으로 보아 성리학적인 심성 차원의 인식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유익한 실학적인 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규경의 궁극적인 학문적 지향은 성리학에 있는 게 아니라 박물학, 명물고증학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취향은 그로 하여금 특히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필기류, 유서류의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인용서목도 이러한 유의 서적들이 가장 많다. 한편, 그의 호 오주(五洲)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한역서학서이나 일본서적에 대한 관심도 가졌다. 이러한 그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지적호기심, 학문적 취향 및 개방적 수용 자세는 《오주연문》에서 특히 중국 서적을 대량으로 인용한 배경적 근거가 된다.

2. 명·청 서적의 인용

한국고전번역원의 교감기(校勘記)에 따르면 《오주연문》에 수록된 내용의 서적은 약600여 종이다. 분포를 대략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⁶⁾ 唐 이전 59종, 수·당·오대 38종, 송·원 149종, 명 143종(한학서역서 9종 포함), 청 188종(한학서역서 4종 포함)이며, 일본 3종, 국내 102종이다. 즉 조선 서적이 약15%, 중국 서적이 85%를 차지한다. 중국 서적 가운데 명대 서적이 49%에 달한다.²⁷⁾ 먼저 명대 서적을 인용회수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오주연문》에 인용된 명대 문헌 수록현황²⁸⁾

25) “蓋歎中原文人，不遺博物之學也，我人則自稱操觚，竝棄格物之學，以至菽麥之不辨，而妄自稱學達天人。吁，是爲何學也。”(<松脂乳香辨證說>)

26) 한국고전번역원사이트 <http://www.itkc.or.kr/itkc/Index.jsp> <부록>의 校勘記典據에 근거하여 필자가 정리한 수치이다.

27) 조선의 서적 가운데 인용횟수가 높은 것(10회 이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李德懋, 《靑莊館全書》(107회), 李 漢, 《星湖僿說》(103회), 李晬光, 《芝峯類說》(61회), 朴趾源, 《熱河日記》(22회), 車天輅, 《五山說林》(15회), 洪萬選, 《山林經濟》(13회), 李重煥, 《擇里志》(13회), 辛敦復, 《鶴山閑言》(10회), 柳得恭, 《灤陽錄》(10회). 이외에도 일본서적은 《和漢三才圖會》(126회), 《蔦錄》(5회), 《和漢名數》(1회)를 인용하였다.

28) 지면의 한계로 4회 이하 인용은 명기하지 않는다. 한국고전번역원 자료 참고. 명나라 때 와 있던 서양인의 서적인용서적은 총9종이다. 《泰西水法》(9회) 熊三拔(Sabbathino Ursis 이탈리아), 《職方外紀》(6회) 艾儒略(Julio Aleni 이탈리아), 《渾蓋通憲圖說》(4회) 利瑪竇(Matteo Ricci 프랑스), 《奇器圖說》(3회) 鄧玉函(Terrenz Joannes 스위스), 《幾何原本》(3회) 利瑪竇(Matteo Ricci 프랑스).

서명	인용회수	저자	문헌특징 ²⁹⁾
物理小識	221회	方以智	생활과학·천문학·물리학·의학 등을 다룬 백과사전 식의 박물학 저작
五雜俎	130회	謝肇淛	필기류
本草綱目	109회	李時珍	의약류
荊川稗編	80회	唐順之	만사만물의 특징을 다룬 유서류
丹鉛總錄	47회	楊慎	여러 책의 다른 점들을 고증한 필기류
圖書編	45회	章潢	산실된 고대 서적의 圖譜를 담은 유서류
弇州山人四部稿	33회	王世貞	《賦部》·《詩部》·《文部》·《說部》 등에 대해 쓴 별 집류
農政全書	20회	徐光啓	농사에 관한 전집
升庵集	17회	楊慎	양신의 작품 전집
天工開物	16회	宋應星	농업·기계·화학·방직 등 생활기술학 서적
正字通	14회	張自烈	자서(字書)
通雅	13회	方以智	천문·지리·칭위·성명·관제·예의 등을 다룬 백과전 서류
武備志	13회	茅元儀	군사서, 종합적 병서
山堂肆考	13회	彭大翼	종합유서류
少室山房筆叢	11회	胡應麟	고증을 위주로 한 필기류 성격의 문학사료서
群芳譜	11회	王象晉	식물재배서적
巖棲幽事	11회	陳繼儒	산속의 생활에서 필요한 꽃·차·분향 등에 대해 기록한 책
泰西水法	9회	熊三拔 (Sabbathino Ursis)	서광계(徐光啓)와 공역, 서방의 수리과학서
廣博物志	9회	董斯張	박물의 유서류
說郛	8회	陶宗儀	한위에서 송원까지의 필기를 모아둔 총서
眞珠船	8회	胡侍	경사(經史), 소설가 등의 말들을 모아 엮은 잡기 류
暖姝由筆	7회	徐充	미사(謎史)를 다룬 필기류
遵生八牋	7회	高濂	양생서
武編	6회	唐順之	군사서
珍珠船	6회	陳繼儒	소설가 등의 말을 기록한 잡기류
職方外紀	6회	艾儒略(Julio Aleni)	지리학서적
委巷叢談	6회	田汝成	송원명시기 향주와 관련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한 총서
樂律全書	5회	朱載堉	악률서
輟耕錄	5회	陶宗儀	원나라 역사와 관련한 찰기

100회 이상 인용한 서책은 《물리소지》·《오잡조》·《본초강목》 등이다.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방이지(1611~1671)의 《물리소지》(221회)이다. 방이지는 명말 청초의 문학가·계몽사상가·과학자이다. 《물리소지》는 모두 12권으로 15개류로 나뉘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천문·지리·화학·생물·의학·농학·음식의복·금석·초목조류·귀신방술·공예·철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룬 일종의 박물학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오잡조》는 130여회를 인용하였다.³⁰⁾ 《오잡조》는 명나라 사조제가 지었으며 총16권으로 이루어졌다. 천(天)·지(地)·인(人)·

《天問略》(2회) 陽瑪諾(Emmanuel Diaz 포르투갈). 《乾坤體義》(2회) 利瑪竇(Matteo Ricci 이탈리아). 《簡平儀說》(1회) 熊三拔(Sabbathino Ursis 이탈리아). 《遠西奇器圖說》(1회) 스위스 明鄧玉函(Terrenz Joannes).

29) 위의 책들은 방대한 분량이고 다양한 영역, 유형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책의 성격을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주로 대략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쓴다.

물(物)·사(事)의 5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필기형식으로 쓴 잡기류이다. 명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규경이 《물리소지》, 《오잡조》 등을 주요 텍스트로 활용한 점, 《오주연문》에 인용된 명대 서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필기류, 잡기류, 유서류, 찰기류, 명물박학, 총서 등의 형태를 띤 점, 그리고 의학·군사·양생·만물·인사·과학·천문·수리·식물·지리·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점 등은 박학, 명물학을 추구하는 《오주연문》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된다. 이로 볼 때, 《오주연문》이 실용적인 명물학, 박물학 서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대 서적가운데 서양 선교사가 전한 마테로리치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4회)·《기하원본(幾何原本)》(3회), 알레니《직방외기(職方外紀)》(6회), 요하네스 테렌츠 《기기도설(奇器圖說)》(3회) 등의 한학서역서가 인용되었다. 이러한 그림을 설명한 서적은 선교사들이 전한 것 외에도 일본 데라시마 료안(寺島良安)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도 대거 인용하였다. 일본서적은 중국 서적에 비해 현저하게 적지만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는 상당히 많은 126회나 인용하였다. 《화한삼재도회》는 쇼토쿠(正德) 2년(1712년)경 출판된 일본의 백과사전으로 명말 왕기(王祈) 《삼재도회(三才圖會)》의 구성을 본따서 지은 것이다. 《삼재도회》는 동식물 관련 항목들을 그림으로 소개한 것이며, 《화한삼재도회》는 당시 실학을 중시하던 조부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이 매우 중시하던 책으로 손자 이규경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오주연문》에는 《삼재도회》(2회)보다 일본의 《화한삼재도회》를 훨씬 많이 인용하였다. 이처럼 명대, 일본의 이러한 도서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어 조선의 문인들에게 지적 충격을 주었고 이는 백과사전식의 유서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표3> 《오주연문》에 인용된 청대 문헌 수록현황³¹⁾

서명	인용회수	저자	문헌유형
日知錄	144회	顧炎武	경술·치도·박문의 내용을 考古한 필기류
池北偶談	110회	王士禎	필기소설집
寄園寄所寄	79회	趙吉士	필기형식의 유서
因樹屋書影	59회	周亮工	필기류
榕村集	42회	李光地	이학관련 문집
熙朝新語	41회	錢泳	사료필기류
遣愁集	38회	張貴勝	고금잡사를 엮은 필기류
居易錄	34회	王士禎	필기류
曝書亭集	31회	朱彝尊	詩詞문집
古今釋疑	30회	方中履	경적·예제·씨족성명·천문·지리·의학 등을 고증 형식으로 엮은 필기류
佩文齋書畫譜	29회	淸聖祖	서화에 관한 유서
坤輿外紀	25회	南懷仁 (Ferdinand Verbiest)	지도, 지리학 저서
康熙字典	23회	張玉書	자전
大清一統志	22회	淸 高宗	관방의 지리서
嶺南雜記	19회	吳震方	잡기, 필기류

- 30) 《오잡조》는 《성호사설》(7회), 《청장관전서》(8회), 한치윤(韓致胤), 《해동역사》(4회)에도 인용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사이트 참고.
- 31) 지면의 한계로 6회 이하 인용은 명기하지 않는다. 한국고전번역원 자료를 참고. 청나라 때 와 있던 서양인의 서적인용은 총4종이다. 《主制群徵》(1회) (독일, 湯若望 Schall von Bell). 《西方要紀》(1회) (벨기에, 南懷仁 Ferdinand Verbiest). 《坤輿外紀》(25회) (벨기에, 南懷仁Ferdinand Verbiest). 《坤輿圖說》(1회) (벨기에 南懷仁 Ferdinand Verbiest).

古今祕苑	18회	墨磨主人	고금의 진귀한 도서에 관해 쓴 필기류
香祖筆記	18회	王士禎	필기류
觚賸	15회	鈕琇	필기체소설 -필기류
日下舊聞考	13회	淸高宗	청대 북경사지 관련 내용을 실은 필기류
天祿識餘	13회	高士奇	잡문 필기류
述異記	13회	東軒主人	귀신, 괴이한 일들을 기록한 필기류
御製詩集	12회	淸 高宗	관방에서 엮은 시문전집
戴東原集	12회	戴震	주로 철학서와 관련 내용을 실은 전집
蚓菴瑣語	11회	李王逋	정치·역사·제도 관련 필기류
淵鑑類函	11회	淸高宗	기존의 유서를 모은 관방의 유서
明儒學案	10회	黃宗羲	명대 학파와 계통을 밝힌 학술서
穆堂初稿	9회	李紱	목당학과 관련 학술서
綏寇紀略	9회	吳偉業	명말 농민전쟁을 기록한 책
虞初新志	9회	張潮	문언단편소설, 필기소설
天香樓偶得	9회	虞兆澐	필기소설
曠園雜誌	9회	吳陳琬	견문잡사나 신괴한 일 등을 기록한 잡기, 필기
三魚堂文集	9회	陸隴其	문집
筠廊偶筆	8회	宋榮	견문을 기록한 잡기, 필기류
閩小紀	8회	周亮工	민 지역의 시문·기록 등을 찰기형식으로 실은 잡기, 필기류
西河集	8회	毛奇齡	문집
曆算全書	8회	梅文鼎	역술산법서
盛京通志	8회	淸高宗	동북지역의 총지
讀書紀數略	8회	宮夢仁	역사사실을 유형별로 기록한 유서
言鯖	8회	呂種玉	자의를 고증하여 일의 시망을 기록한 필기류
格致鏡原	7회	陳元龍	박물, 공예를 기록한 필기류
留溪外傳	7회	陳鼎	전기(傳奇)소설집
白華前稿	7회	吳省欽	시문집
讀禮通考	7회	徐乾學	경서·고금전장제도 등의 원류와 의미를 유서

명대에는 주로 실용적인 박물, 명물서적이 주를 이루었고 이는 청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증학을 중심으로 한 청나라의 학술변화와 한역을 통한 서양지식의 수용은 필기류 저작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 필기류 저작은 내용과 서술방식 및 편폭 등에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지식정보를 기술하기에 적절한 방식이었다. 이로써 청대에는 필기류 저작이 대량으로 출판되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19세기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학술의 유입으로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며, 당시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지식정보의 증가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서적을 수용하면서 지식정보를 체계화해 나갔다.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필기류 문헌이다.”³²⁾

그러나 청대에는 명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방서적의 인용이 두드러지게 많음을 볼 수 있다.

<표4> 《오주연문》에 인용된 청대 관방문헌의 수록현황

항제	서책(인용 횟수)	서책수
淸高宗(건륭제) (1735-1796재위)	大清一統志(22회), 日下舊聞考(13회), 御製詩集(12회), 淵鑑類函(11회), 盛京通志(8회), 授時通考(6회), 皇朝文獻通考(6회), 皇朝通志(6회), 四庫	19

32) 김명호 등,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학자원, 9-10쪽.

	全書簡明目錄(2회), 大清會典則例(2회), 儀象考成(2회), 滿洲源流考(1회), 續文獻通考(1회), 河源紀略(1회), 皇朝通典(1회), 歷象考成(1회), 歷代通鑑輯覽(1회), 皇清文穎(1회), 禮器圖式(1회)	
淸聖祖(강희제) (1662-1722재위)	佩文齋書畫譜(29회), 佩文齋廣群芳譜(3회), 全唐詩(3회), 聖祖仁皇帝御製文集(3회), 數理精蘊(2회), 月令輯要(1회), 歷代賦彙(1회), 律呂正義(1회), 佩文韻府(1회)	9
淸世宗(옹정제) (1722-1735재위)	聖祖仁皇帝聖訓(1회), 盤山志(1회), 福建通志(1회)	3
淸仁宗(가정제) (1795-1820재위)	大清會典(4회), 淸一統志(1회)	2

앞서 밝혔듯이, 저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청나라에 들어오면서 북경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청나라 때 건륭문화의 융성과 황제의 명으로 출판된 관방서적은 특히 정조대의 학술 문화적 취향과 더불어 비교적 용이하게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하고 《고금도서집성》 등 다량의 중국 문헌을 들여왔고, 규장각에 개유와(皆有齋), 열고관(閱古觀)이라는 서고를 설치하고 중국본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게 했다고 한다.³³⁾ 이에 따라 명·청대 지식인들의 다양한 방대한 저술과 지식 및 《사고전서》와 같은 거질(巨帙)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지적호기심과 학문 수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³⁴⁾

하사·사행·문인교류·역관·거간꾼 등을 통해 유입되었던 서적이 조선의 문인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과 더불어 특히 규장각 검서관으로 벼슬하던 조부 이덕무, 부친 이광규를 통해 중국 서적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규경이 생존하던 18, 19세기는 명·청대부터 새로운 학술의 유입 등으로 인해 조선의 지식정보가 증가한 시기였다. 이러한 서책의 유입과 지식정보가 집적되는 배경 하에서 《오주연문》도 탄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명·청대 서적과 한학서역서, 일본서적 등의 인용양상을 보면, 조선으로 들어온 서적은 주자학으로 국한되지는 않았고 중국의 세계질서 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지리서와 서양 선교사가 전한 지도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실학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17-19세기 조선의 백과사전식 유서에 대거 인용되었던 것이다.

IV. 지식수용과 학문지향

1. 글쓰기 방식

이규경은 《오주연문》을 편찬할 때 다량의 중국 서적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였고, 또 그러한 서적들이 이규경의 학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를 통해 《오주연문》의 성격과 이규경의 학문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주연문》의 서술방식은 크게 볼 때 찰기(札記, 혹은 필기) 방식 및 변증(辨證)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이규경은 《오주연문》을 엮을 때 주로 찰기형식을 취하였다. 조선 후기의 지식정보 축적과 생산방식으로 쓰인 찰기는 청나라의 고증적 치학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어

33)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물들》, 책과 함께, 2007 참조.

34) 조선 후기 특히 정조 때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국조보감(國朝寶鑑)》·《대전통편(大典通編)》·《규장전운(奎章全韻)》 등의 책들이 편찬되기도 했다.

대사전》은 ‘찰기’에 대해 “독서하면서 뽑아 적은 요점이나 심득(心得) 혹은 수필기사 등의 문자를 가리킨다.” “혹은 배워서 얻거나 혹은 생각해서 얻은 것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였다.”라고 하였다.³⁵⁾ 주로 명·청대의 필기류 서적들이 대부분 이런 찰기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어대사전》은 ‘필기’에 대해 “붓 가는 대로 기록한 산문체를 말한다. 내용은 대부분 견문을 기록하고 명물(名物)을 변증하고 고어(古語)를 해석하고 사사(史事)를 기술하고 정경(情景)을 표현한다. 다른 명칭으로 隨筆, 筆談, 雜識, 札記 등이 있다.”³⁶⁾고 정리하였다. 이처럼 찰기와 필기는 거의 동일한 개념과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필기’라는 말은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남북조 시기는 한나라 때 고문과는 다른 성운과 대우를 중시하는 변려문이 성행했다. 그래서 “운이 있는 문장을 ‘문’이라고 하고 운이 없는 문장을 ‘필’이라 하였다.”³⁷⁾ 즉 운이 있는 문장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직관(職官)들이 쓰던 실용적인 응용문을 ‘필’이라하였으며, 직관들이 쓰던 주의(奏議), 조책류와 같은 문장을 말한다.³⁸⁾ 당대에 이르러서 《수서경적지》에는 별도로 ‘잡가’류를 두어 필기류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잡기》·《박물지(博物志)》·《잡설》·《논형(論衡)》·《고금주(古今注)》·《시무론(時務論)》·《광지(廣志)》 등 고증변증과 잡설잡식(雜識)의 내용을 담은 필기류 서적들을 수록하였다.³⁹⁾ 당대에는 위진남북조 때 쓰였던 주의, 조책의 실용적 문장으로서의 문체의 개념을 넘어 잡기잡설 등의 내용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송대에 이르러 송기(宋祁)가 처음으로 ‘필기’라는 명칭으로 책이름을 달았다. 그의 《筆記》에 “상권<석속(釋俗)>, 중권<고증>은 대부분 명물과 음훈을 바로잡아서 소학자들에게 도움이 많으며, 또 그 사이에 문장과 역사적 이야기들을 다루었다. 하권<잡설>은 자서로 삼고 자 기이하고 의미 깊은 말들을 엮었다.”⁴⁰⁾라고 밝혔다. 송기는 이전에 쓰였던 ‘필기’의 개념과 범주를 개인의 저작으로 차용한 것이다. 이후 명·청대에 이르러 ‘~필기’라고 명명한 필기류 서적들, 예를 들면 《밀재필기(密齋筆記)》·《노학암필기(老學庵筆記)》·《향조필기(香祖筆記)》·《구지필기(仇池筆記)》·《로포필기(蘆浦筆記)》 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⁴¹⁾

특히 명·청대의 필기류 서적들은 찰기의 저술방식을 취하였다. 찰기는 체제가 자유스럽고 내용도 복잡·잡다하다. 고증과 변증이나 잡설의 방식을 택하고 역사적 이야기와 자신의 견문을 말하거나 잡다한 이야기들을 서술한 일종의 잡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기를 ‘수필(隨筆)’·‘필담(筆談)’·‘잡식(雜識)’·‘잡기(雜記)’·‘잡지(雜志)’·‘잡조(雜俎)’·‘찰기(札記)’·‘총설(叢說)’·‘만록(漫錄)’·‘담총(談叢)’·‘기문(紀聞)’ 등으로도 부른다.

대체로 붓 가는대로 편안하게 기록하고, 편쪽에 구애받지 않고, 차서[체례]의 순서를 나누지 않았다.”⁴²⁾라고 기록하고 있다. ‘필기’의 함의를 확실히 “붓 가는대로 기록하고, 의론과 잡설

35) 札記: “讀書時摘記的要點, 心得或隨筆記事等文字.” “亦指記錄讀書時的心得體會.” “或學而有得, 或思而有得, 輒割記之.”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4卷, 漢語大詞典出版社, 722쪽.

36) 筆記: “一種以隨筆記錄爲主的著作體裁. 內容大都爲記見聞, 辨名物, 釋古語, 述史事, 寫情景. 其異名則有隨筆, 筆談, 雜識, 札記等.” 《漢語大詞典》8卷, 1164쪽.

37) 《文心雕龍·總述》: “以爲無韻者筆也, 有韻者文也.” 劉勰 撰·周振甫 譯注, 《文心雕龍今譯》, 中華書局, 1986年, 380쪽.

38) 《문심조롱·조책(詔策)》 참고.

39) 청대 《사고전서총목》 ‘잡설지속(雜說之屬)’에 “잡설의 근원은 《논형》에서 시작되었다. 《논형》의 내용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잘못된 속설을 바로 잡고, 최근의 일문 일사를 서술하고, 이전의 의미를 종합하였다. 후에 후인들이 이를 따라 필기를 짓게 되었다.

40) 宋祁, 《筆記》: “上卷曰<釋俗>, 中卷曰<考證>, 多正名物音訓, 裨於小學者爲多, 亦間及文章史事. 下卷曰<雜說>, 則欲自爲子書, 造語奇雋.”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7, 1604쪽.

41) 필기의 변화과정은 岳永, <清代筆記觀初探>, 華東師範大學博士論文, 2014, 2-4쪽을 인용.

42) “雜說之源, 出於《論衡》. 其說或抒己意, 或訂俗訛, 或述近聞, 或綜古義, 後人沿波, 筆記作焉. 大抵

의 방식을 취하고, 고증과 변증방식을 위한 잡저의 문학 유형의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명·청대 필기류 서적은 자신의 책을 설명할 때 “~잡저필기”·“~필기”·“~筆記之文”·“~독서필기”·“~수필찰기” 등으로 명명하였다.⁴³⁾ 이처럼 ‘필(기)’는 위진남북조에서 청대에 이르기 까지 문체->내용->글쓰기 방식->문학유형->문헌분류체계 등 범주와 개념의 확장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상당히 광범위한 문학 유형으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은 청대에 다량의 서적 출판과 지식 생산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붓 가는 대로 기록하는 서술방식, 고증변증 방식, 잡설, 견문 등을 다룬 잡다한 내용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성 등으로 인해 필기의 개념이나 범주는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글쓰기의 격식이나 주제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는 독서수필이나 찰기같은 형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형태의 예를 들어 본다. 《오주연문》의 인사편->인사류->신형(身形)에서 “수염(鬚髯)에 대한 변증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수염이 작은 데다 성질마저 웅졸하므로 자칭 염부(髯婦)라고 하였다. 공연히 고금 사람들의 수염이 아름다운 자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이 변설(辨說)을 짓는다. 무릇 남자의 의표(儀表)를 일컬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수염을 말한다. 수염(鬚髯)이 아름답기로는 제왕의 경우는 한 고조가 수염이 아름답고, 광무제(光武帝)가 수염이 아름답고, 주문제(周文帝)가 수염이 아름답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남보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일컬었을 것이다. 송(宋) 요관(姚寬) 《요씨잔어(姚氏殘語)》에 이르기를 “당문황(唐文皇)의 수염은 규염(虬髯: 꼬불꼬불한 규룡(虬龍)의 수염)이었는데, 그 수염 끝에다 활[弓] 하나를 걸 수 있다.” 하였으니, 역대 제왕들의 수염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이다. 하지만 규염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어찌 한 개의 수염에 활 하나를 걸 수 있겠는가. 너무 중도에 지나친 말이다. 기타 창[戟]처럼 뾰뾰하게 생긴 것, 고슴도치처럼 털처럼 생긴 것, 풀[草]처럼 생긴 것, 주먹[拳]처럼 굽은 것 등등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염으로 이름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상(右相) 이상진(李尙眞)은 전주에 있었고, 병사(兵使) 소두산(蘇斗山)은 익산에 있었는데, 모두 구레나룻이 뺨에 가득하였다. ……이지봉(李芝峯)의 《유설(類說)》에 이르기를 “김용택(金龍澤)은 수염이 매우 많으면서 뻑뻑한데 거의 반쯤이나 희어져 버렸다. 그가 천장(天將, 명나라 장수)의 접빈관이 되었을 때, 중국 사람이 그에게 수염을 검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 사람 말에 따라 약수(藥水)로 물들인 나머지 하얀 색으로 변하여 그만 검푸른 빛이 되어 하나의 귀신의 형상처럼 되었다 한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마침내 감히 밖을 나가지 못하였다. 대개 중국 사람이 그를 희롱한 것이다. ……”⁴⁴⁾

여기서는 먼저 변증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전개한다. 주로 이전에 기록해 두었거나 기억나는 데로 쓰기도하고 더러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한다. 어떤 학문적인 엄정성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주연문》은 자질구레한 일을 기록한 필기류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심지어 필기를 쓰는 것은 한가로이 소일하는 것이며 엄정한 저술과는 관계없다는 인식도 있다. 예를 들어, 기운은 “저녁 해가 서쪽의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걸리고 정신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더 이상 저술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땐, 때때로 잡기를 써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⁴⁵⁾ 《오주연문》의 형태는 필기형식에 비교적 가까운 것은 본인 역시 오랜 기간 책 속에

隨意錄載，不限卷帙之多寡，不分次第之先後。”《四庫全書總目》，中華書局，1997，1636쪽.

43) 岳永, <清代筆記觀初探>, 華東師範大學博士論文, 2014, 2-3쪽. 그래서 청대 ‘필기’는 기이한 이야기나 자질구레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殘叢小語)식의 ‘필기소설’ 등이 나오게 되었고, 일부 학자는 필기를 필기류 소설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44)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의 번역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함.

45) “景薄桑榆，精神日減，無復著書之志，惟時作雜記，聊以消閑。”

서 얻은 것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을 모아 《오주연문》을 엮었다고 했고, 실제로 《오주연문》은 이규경이 젊은 시절부터 평상시 초록해 두었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장구만 묵수하여 이러한 유용한 학문에 대해 전혀 그 단서를 알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좋아하였다. 여러 세월 동안 혹은 책 가운데 얻은 것과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모두 합치니 약간 조목이 되어 ‘연문장전’이라 이름을 붙였고, 장전을 따라 소일거리로 삼을만한 것 몇 가지를 모아 ‘산고’라고 이름하였다.”⁴⁶⁾

“나는 초야에 거처하면서 단지 벌레나 물고기를 관찰하고 기록할 줄만 안다. 그래서 나무꾼이나 소치는 이들이 알려주는 벌레나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상세하게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고금인사들이 기록한 새나 짐승에 관한 글을 읽으면 다시 잘 베껴두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이 쓸데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쓸데없고 무익한 가운데에도 고증과 증거에 도움이 되는 이로움은 있다.”⁴⁷⁾

그리고 《오주연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일지록》(144회) 역시 처음에는 고염무가 독서하면서 수시로 기록해 둔 짧은 논문을 모아 그에 대한 증거를 밝혀가며 이동(異同)을 밝혀 엮은 것이다. 고염무는 이런 점에 대해 “내(고염무)가 어릴 적부터 책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때마다 기록해 두었는데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때때로 다시 고쳤다.…… 자하(子夏)의 말을 취해 이름 짓기를 일지록이라 했으니 이를 통해 후대의 군자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하였다.⁴⁸⁾

《오주연문》에는 필기류 저작들이 많이 인용되었는데 《일지록》 다음으로 많이 인용을 한 책은 왕사정(王士禎)의 《지북우담(池北偶談)》(110회), 《향조필기》(18회 인용) 등이다. 《오주연문》에서 청대 서적의 개별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왕사정이며 모두 차기식의 필기류 작품들이다. 청나라 송락(宋犛)은 왕사정의 <향조필기서>에서 차기의 성격을 이렇게 말했다.

“관아에서 퇴근한 여가에 보면 (왕사정은) 저서를 하며 스스로 즐기는 데 쉬는 날이 없었다. 詩文을 짓는 외에 틈틈이 붓 가는 대로 써서 차기를 만들었는데, 경사에 통달하고 문헌을 드러내고자 하여 하나의 명칭과 사물일지라도 훗날 전고로 남기거나 전범으로 갖추 수 있는 것은 모두 적었다.”⁴⁹⁾

《지북우담》은 청대 필기집으로 1300여 조목과 총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청대의 전장제도[談故], 명나라 중엽에서 청초까지의 인물[談獻], 시문이나 가구(佳句)를 모음[談藝], 괴이한 기문[談異]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주연문》에서 많이 인용한 《일지록》, 《지북우담》 등은 고증과 찰기 방식으로 시작하여 완성한 필기류 저서라는 공통점을

46) <五洲衍文長箋散稿序>: “不佞墨守章句於此等有用之學，蔑如也莫識其端倪，而其心則竊好之，積累歲月，或有獲於書中，或起思於心上，總計之則凡若干條，名之曰衍文長箋。從長箋。撮其可作消閒者數則，名之以散稿。”

47) <蝴蝶蜻蜓爲蟲胎辨證說>: “余處草野，但知注蟲疏魚。故如聞樵童牧豎所傳蟲魚之事，則必細錄之。如見古今人士所記，鳥獸之文，則更翻鈔之，自知其無所用，無所益，然其無用無益中，亦有可考可據之益。”

48) ‘일지’는 《논어·자장》편의 “날마다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달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日知其所亡，月無忘其所能，可謂好學也已矣)”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일지록》은 ‘매일 깨달음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고염무 자신의 문제의식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다.

49) 清 宋犛, <香祖筆記序>, “公退之暇，輒見其著書自娛，殆無虛日。聲詩古文而外，間隨筆爲劄記，要必貫串經史，表章文獻，即一名一物，異日可垂典故備法戒者，乃錄之。”

발견할 수 있다.⁵⁰⁾

그리고 조선시대 필기류 서적도 상당히 많았다.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은 19세기 조선의 필기류 문헌을 대략 448종으로 뽑아내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52종으로 좁혀서 필기류 저작에 대한 해제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이가환(李家煥) 《잡설(雜說)》· 이옥(李玉) 《白雲筆》· 이규경 《오주연문장전》· 성대중(成大中) 《청성잡기(靑城雜記)》· 김매순(金邁淳) 《궐여산필(闕餘散筆)》· 홍석주(洪奭周) 《학강산필(鶴岡散筆)》· 유최진(柳最鎭) 《초산잡저(樵山雜著)》· 김영한(金泳翰) 《미묵산방필기(味墨山房筆記)》· 김택영(金澤榮) 《잡언(雜言)》· 조재삼(趙在相) 《송남잡식(松南雜識)》· 이우원(李裕元)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이 있다. 역시 필기류 서목 안에 《오주연문장전산고》도 들어있다.⁵¹⁾

이는 명·청대 서적이 조선으로 들어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량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지식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백과사전식의 《지봉유설》, 《성호사설》 및 《오주연문》 등에 다량으로 인용되었다. 당시 필기류 저작이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필기류 서적의 출간, 서적의 인용 외에도 이들 저작의 제목도 명·청대 필기류 저작의 이칭 ‘수필(隨筆)’·‘필담(筆談)’·‘잡식(雜識)’·‘잡기(雜記)’·‘잡지(雜志)’·‘잡초(雜俎)’·‘찰기(札記)’·‘총설(叢說)’·‘만록(漫錄)’·‘담총(談叢)’·‘기문(紀聞)’ 등과 거의 동일한 형태에서도 알 수 있다.⁵²⁾

진재교에 따르면, 찰기 방식은 조선 시대에서 경학 및 성리학 관련 저술에 이미 폭넓게 활용된 양식이었다. 따라서 이규경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지식전달의 서술방식으로 쓰였다. 선현들의 저술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구절이나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을 선록하여 ‘~찰기’, ‘~차록(筭錄)’ 등의 이름을 붙여왔다. 이처럼 18, 19세기의 찰기체 필기의 대부분은 명·청 서적의 유통으로 촉발된 새로운 지식의 수용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서적유입과 유통과정 속에서 용이하게 지식정보를 처리하고자한 방식이었다고 한다.⁵³⁾ 《오주연문》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필기는 단순히 그냥 손가는 데로 메모한 기록쪽지에 그치지 않고 ‘고증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며 하나의 ‘논점에 대해 변증과 고증에 주력’한 일종의 지식을 전달하는 문체이자 방식이며 학술적 취향도 강하다.⁵⁴⁾ 《오주연문》은 모두 60권으로 총 14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고증을 통해 저자의 견해를 밝힌 ‘변증(辨證)’방식으로 집필하였다. 이를테면, 제1권의 처음 ‘십이중천변증설(十二重天辨證說)’에서부터 제60권의 마지막 ‘황정편정변증설(黃精偏精辨證說)’까지 모두 ‘~변증설’이라고 명명하였다. 대체로 ‘변증설’의 서두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나 대상에 대해 몇 줄 요약의 하고 이에 대해 고증과 설명을 한 뒤, 마지막에 ‘변증설’이란 세 글자를 덧붙인 형식이다.⁵⁵⁾ 변증설도 위의 찰기, 필기 방식이지만 좀 더 고증, 변증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류예치우(劉葉秋)는 필기의 분류와 범주를 “소설 이야기류”·“역사 이야기류”·“고거변증류” 셋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역사 이야기류”와 “고거변증류”는 천문·지리·문학·예술·경사자집·

50) 《지봉유담》은 이규경 외에도 이규경보다 앞선 박지원, 이덕무, 성해응(成海應) 등 박학으로 일가를 이룬 학자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참조.

51) 김명호 등,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학자원, 13쪽.

52) 조금 다른 것은 ‘산필’, ‘산고’이다. ‘산’의 의미는 이규경이 말했듯이 어떤 구체적인 체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기저기서 본 것을 기록해 둔 흙어진 원고라고 말하고 있다.

53)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39, 2007.

54)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참조.

55) 모두 이런 방식은 아니다. 주제에 대해 바로 변증, 설명을 하고 뒤에 ‘~변증설’이라고 붙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장·제도·풍속민정·일문·자질구레한 이야기 및 귀신·괴이·의술·점성 등 거의 망라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내용도 상당히 복잡했다. 이들은 대부분 붓 가는 대로 기록한 자질구레한 자료들이다.”⁵⁶⁾고 하였다.

류예치우는 고거변증류의 필기는 고증학의 일종으로 “크게는 경의전소(經義傳疏)의 정미한 점을 들추어낼 수 있고 작게는 명물상수의 근원을 천착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⁵⁷⁾라고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주연문》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한 《일지록》이다. <일지록>에 “모든 경의·사학·관방·이치(吏治)·재부(財賦)·전례·여지(輿地)·예문 등에 대해 하나하나 그 원류를 통하게 하고 잘못된 점을 고증하였다.”⁵⁸⁾라고 했다. 《일지록》은 경사자집에 걸쳐 다양한 기록을 하면서 고거와 논변 방식을 취하여 고증학 서적에 속하며, 고염무의 학문은 고증학의 일가를 이룬 것이다. 《오주연문》이 일부 잡다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체제도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집필 과정에서 학문적인 엄정성, 즉 고증과 변증을 중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규경은 이처럼 학술적인 변증적 글쓰기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학술적 관점을 펼쳐나갔다. 《오주연문》이 일부 잡다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체제도 불분명한 점은 있지만, 집필 과정에서 학문적인 엄정성, 즉 고증과 변증을 중시했던 점은 분명하다. 경사편->논사류->인물류(중국)의 “맹자(孟子)에 대한 변증설”을 예를 들어보자.[부록참조] 이 안에서 대체로 맹씨의 근원, 맹자의 자와 호, 생평, 맹자천하주유, 맹자외편, 《맹자》경문내용, 정전제, 효와 상례, 맹자제자, 13경, ‘성선과 인’ 등에 대한 내용을 변증하면서 무려 45여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변증하였다.⁵⁹⁾ 서목을 보면, 《통기(通記)》, 《한서》, 《예부운략(禮部韻略)》, 《성증론(聖證論)》, 《도서편(圖書編)》, 《패사(稗史)》, 《산당사고(山堂肆古)》, 《격치총서(格致叢書)》, 《완위여편(宛委餘篇)》, 《고금주(古今註)》, 《일지록(日知錄)》, 《시초목소(詩草木疏)》, 《맹씨보(孟氏譜)》, 《삼천지(三遷志)》, 《학교문(學校問)》, 《사기(史記)》, 《염철론(鹽鐵論)》 등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한 주제에 대한 설명과 변증을 위해 상당히 많은 서적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학문의 엄정성을 보여주려고 했다.⁶⁰⁾ 이는 청대 고증학의 주된 방법인 ‘고증’을 통해 변증하려는 그의 학문적 엄정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일지록》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점도 이렇게 해석된다. 《오주연문》은 주제나 논의의 대상에 대해 자신의 견문이나 관점 및 주장을 펼쳐나간 것도 있지만, 대체로 명·청대 서적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각 주제에 대한 고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조선 지식계가 중국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 서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이다.

이규경은 실제로 자신 ‘변증’의 성벽이 있는 사람처럼 실증을 하면서 《오주연문》을 엮어가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56) “二三兩類，則天文·地理·文學·藝術·經史子集·典章·制度·風俗民情·軼聞·瑣事以及神鬼·怪異·醫卜·星相等，幾乎無所不包，內容極爲複雜；大都是隨手記錄的零星的材料。這兩類只能算作‘筆記’，不宜稱爲‘筆記小說’” 劉葉秋，『歷代筆記概述』，北京出版社，2003，4쪽.

57) 劉葉秋，『歷代筆記概述』，北京出版社，2003，4쪽.

58) “凡經義史學官方吏治財賦典禮輿地藝文之屬，一一疏通其源流，考證其謬誤。” 張京華 校釋，『日知錄校釋』，岳麓書社，2011，1431쪽.

59)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

60) 나머지는 《주례(周禮)》，〈하청송(河淸頌)〉，〈안씨가훈(顔氏家訓)〉，〈양서(梁書)·처사전서(處士傳序)〉，〈광운(廣韻)〉，〈맹자집주〉，〈풍속통(風俗通)〉，〈한서예문지〉，〈정자통(正字通)〉，〈문선(文選)〉，〈예기〉，〈좌전·양공(襄公)〉，〈육가이동(六家異同)〉，〈야로기문(野老紀聞)〉，〈서경·익직(益稷)〉，〈공씨정의(孔氏正義)〉，〈예기·왕제(王制)〉，〈서경·요전(堯典)〉，〈성호사설〉，〈예기·단궁(檀弓)〉，〈중용〉，〈폭서정집(曝書亭集)〉，〈맹자장구〉，〈맹자제자열전〉，〈광운(廣韻)〉，〈회남자(淮南子)〉，〈고금인표(古今人表)〉，〈서록해제(書錄解題)〉，〈문헌통고(文獻通攷)〉，〈맹자정의(孟子正義)〉이다. 동일한 책이어도 편명이 다르면 기재했다.

“무릇 사물을 변증하는 것이 만약 참된 지식과 정확한 견해가 아니라면 그 변증이란 길거리, 골목의 말에 지나지 않으므로 굳자는 취하지 않는다. 내가 사물에 대하여 옛일을 끌어와 지금을 증명함에 있어서 매양 그 시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들은 것이 적고 본 것이 좁으므로 비록 이언(俚諺)이나 야담이라도 수집하여 나열하지 않음이 없었다. 간혹 한 조각의 무늬라도 엿보면 홀로 기뻐하면서 기재하기를 그치지 않아 전혀 체재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매번 대가들의 기룡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걱정하지 않았다. 심하다, 변증을 좋아하는 성벽이여!”⁶¹⁾

이규경이 옛 일과 서적의 내용을 끌어다 쓰는 이유는 현재 필요한 것들을 증명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시말과 원류를 찾아내려는 학문적 자세를 변증방식으로 풀어내었다. 이처럼 이규경은 명·청대의 수많은 서적을 활용하여 폭넓은 지식 수용과 사유의 세계를 변증이론 방식을 자식의 학문세계를 구축해나갔다. 청대에는 《일지록》뿐만 아니라 청대에는 심덕잠(沈德潛)의 《서영총설(書影叢說)》 등 고거변증의 방식을 취한 필기류 저작이 상당히 많다. 청대 고증학의 학술적 풍조의 영향으로 고거를 위주로 한 필기류는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청대 필기류의 하나로 자리하였고, 이는 서적의 유입으로 자연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학문의 지향

앞서 제시한 <표1>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오주연문》을 《성호사설》의 <천지문>·<만물문>·<인사문>·<경사문>·<시문문>으로 구분하여, 마치 유서(類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오주연문>에서는 명·청대의 유서들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주연문》의 성격을 유서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주연문》은 처음부터 유서의 형태의 의도나 목적으로 편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의 습성은 독서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그 명물을 상세히 밝혀 그 근원을 끝까지 천착한 연후에야 비로소 그쳤다.”⁶²⁾

“오랜 세월 동안 혹은 책 속에서 얻은 것과 혹은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모두 합쳐보니 약간의 조목이 되었다.”⁶³⁾

이처럼 《오주연문》은 ‘변증’에 중점을 둔 것이지, 애당초 유서처럼 어떤 확정된 범주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분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했듯이 1416개의 ‘변증설’을 60권의 분류체계는 서로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적어도 최남선 이후 판본에서는 애당초 유서에 염두를 두고 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분석으로 통해서도 오히려 보다 필기류에 가깝게 보인다. 물론 필기류와 유서의 특징을 겸한 서적도 많지만 실제로 《오주연문》에서도 필기류의 서적을 많이 인용하였다. 예를 들면, 송대의 《고금사문류취(古今事文類聚)》(40회), 축목(祝穆) 《몽계필담(夢溪筆譚)》(19회), 심괄(沈括) 《태평광기(太平廣記)》(16회), 이방(李昉) 《제동야어(齊東野語)》(14회), 주밀(周密) 《계

61) <燕銜石辨證說>: “凡事物之辨證者, 若非真知的見, 則其所辨者, 無非街譚巷說, 故君子不取也. 予於事物, 援古證今, 每欲發明其原委. 所聞者謬, 所見者寡, 故雖俚諺野談, 罔不搜羅. 或有一斑之窺, 則暖姝之紀載不已, 了無裁度, 每受大方之譏笑, 而不自恤焉. 甚矣, 其好辨之癖也.”

62) “余之習性, 每於讀書, 必詳其名物, 究極本原, 然後乃已.”(<大食窰瑯瑯器辨證說>)

63) “積累歲月, 或有獲於書中, 或起思於心上, 總計之則凡若干條.”(<五洲衍文長箋散稿序>)

신잡지(癸辛雜識)》(11회), 《학림옥로(鶴林玉露)》(9회) 등의 내용을 두루 인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오주연문》의 서술방식이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칠기, 필기적인 기록과 고증학적인 변증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칠기식 기록과 변증식 서술방식은 이규경의 다른 저서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攷辨)》에서 ‘고변’이란 용어를 상용한 것으로도 볼 때, 《오주연문》은 일종의 ‘차기식 필기류’와 ‘명물고증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⁶⁴⁾

이를테면, 《오주연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같은 조선 서적 《성호사설》과 《지봉유설》의 분류방식을 비교해 보면, 《성호사설》은 천지문·만물문·인사문·경사문·시문문 총5문, 3,007항목으로 분류되었고, 《지봉유설》은 天文部·時令部·災異部, 地理部·諸國部, 君道部·兵政部, 官職部, 儒道部·經書部一, 經書部二, 經書部三·文字部, 文章部, 人物部·性行部·身形部, 語言部, 人事部·雜事部, 技藝部·外通部, 宮室部·服用部·食物部, 卉木部·禽蟲部 총20권, 27부, 3,435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중국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일지록》은 經義, 政事, 世風, 禮制, 科擧, 藝文, 雜論名義, 古事眞妄, 史法, 注書, 雜事, 兵事·外國, 天象術數, 地理, 雜事 등 총32권, 15류, 1021항목으로 분류하였고,⁶⁵⁾ 《오잡조》는 天部·地部·人部·物部·事部 등 총16권, 5부로 분류하였다. 이 4권은 비교적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주연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위의 서적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유사형태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주연문》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대량의 문헌자료를 저자가 어떤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규경은 애당초 한국고전번역원이 분류를 한 것처럼 배열되어 있지 않았다. 1959년 동국문화사에서 영인한 책은 序, 1-60권, 附錄(《오주서종(五洲書種)》,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 《오주서종박물고변이국(五洲書種博物攷辨二局)》)으로 나누어있다. 1-60권으로 나누었지만, 매 권마다 어떤 구체적인 범주와 체계(<표1>의 편, 류, 항목)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卷一 十二重天辨證說’을 두고 그 아래에 여러 항목의 ‘~변증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그 ‘변증설’도 모두 ‘卷一 十二重天辨證說’과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으로 배치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세부적인 설명이나 변증을 전개할 때 자신의 견문과 주관적인 의견도 적잖이 보인다.

또한 《오주연문》에는 명대의 대표적인 유서⁶⁶⁾ 《영락대전(永樂大典)》·《경제류편(經濟類編)》·《담류함(唐類函)》·《운부속편(韻府續編)》·《오거운서(五車韻瑞)》·《산당사고(山堂肆考)》·《천중기진(天中記陳)》·《삼재도회(三才圖會)》·《도서편(圖書編)》 가운데, 단지 《산당肆考》(13회)와 《圖書編》(45회), 《삼재도회(三才圖會)》(2회)만 인용하였다. 그리고 청대의 대표적인 유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연감류함(淵鑒類函)》·《패문운부(佩文韻府)》·《자사정화(子史精華)》·《격치경원(格致鏡原)》·《사물원회(事物原會)》·《일사기시(壹事紀始)》·《월령수편(月令粹編)》 가운데 《패문운부(佩文韻府)》를 제외하고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⁶⁷⁾ 물론 저자의 의도에 따라 또는 《오주연문》과의 성격상의 차이로 인용하지 않을 수도

64) 조선의 《지봉유설》이 명물고증의 시대를 열었고 이 성과를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가 계승하였다는 언급은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진단학보》, 98, 2004.)를 참고.

65) 반뢰(潘耒)는 《일지록》의 내용을 經義·史學·官方·吏治·財賦·典禮·輿地·藝文 등 8류로 나누었다. 15류는 《四庫全書總目提要》 卷一百十九, 子部二十九, 雜家類三에 의거한 것이다. 원래 1019항목에 황간(黃侃)의 《日知錄校記》에서 증가한 2항목을 더한 수이다.

66) 한미경,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9집, 2014, 210-212쪽 참조.

67) 淸 聖祖, 《佩文韻府》(1회), 《佩文齋廣群芳譜》(3회), 《佩文齋書畫譜》(29회); 淸 高宗, 《四庫全書簡明目錄》(2회)을 인용하였다.

있다. 하지만 《자사정화》·《격리경원》·《사물원회》·《일사기시》 등은 모두 사물기원 유서 인데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규경은 《오주연문》은 오랜 시간 동안 틈틈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특유의 변증적 학문 태도로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를 모아 《오주연문》을 완성하였다고 말했으며, ‘변증설’을 어떤 범주화하거나 분류화하여 분류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유서를 목적으로 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주연문》의 서술방식은 찰기방식을 활용하여 《일지록》, 《오잡조》, 《池北偶談》등 필기류와 유사하며, 실제로 이들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기타 명·청대 필기류의 서적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성호사설》의 체례에 따라 재분류 작업한 것을 보고 《오주연문》을 유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⁶⁸⁾

이상, 이규경은 명·청대 서적의 유입과 인용을 거쳐 그 지식과 정보를 찰기방식과 변증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재구성 방식은 《오주연문》에 나타난 명·청대 서적의 유입과 수록상황, 조선 후기 명·청 지식의 수용, 지식인들의 사행과 저작,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 등의 배경 하에서 이규경의 지식의 수용과 학문의 취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IV. 맺으며

지금까지 《오주연문》의 체례와 특성을 파악하고, 《오주연문》에 인용된 중국서적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오주연문》의 성격과 어떤 연계성을 지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당시 선진문물의 매개체로서 중시되었던 중국 서적이 어떻게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 지식인들 특히 이규경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주연문》은 완전한 ‘유서’의 형태라기보다 찰기방식과 변증방법을 활용하여, 명·청시기의 서적을 인용하고 그들의 지식을 재가공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해 놓은 일종의 명물고증서, 박물고증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주연문》에 인용된 송대 및 명·청 시기 서적이 필기류의 서적이 많은 점에서도 잘 드러났다.

다음은 향후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를 말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지봉유설》, 《성호사설》의 성과를 가장 발전적으로 계승한 성과가 바로 이규경의 《오주연문》이다. 《오주연문》은 이수광 이래 발전해온 명물고증학의 성과를 대표한다. 이규경은 박학을 강조하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병법·광물·초목·어충·의학·농업·의복·화폐 등 다양한 학문의 자료를 수용하였다. 이는 《지봉유설》, 《성호사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다. 그리고 이 세 저서는 공히 중국서적을 대량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주연문》은 《지봉유설》에서 문학류에 대한 기록을 많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문학류의 수록이 적은 편이며, 《성호사설》에 비하면 치밀한 논증 방식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17세기 말 이후부터 명물고증학과 실학이 어떻게 거대한 백과사전식의 저작으로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중국 서적들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보다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오주연문》에서 수록된 명·청 서적의 인용과 관련하여 《오주연문》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중국 서적이 《오주연문》의 어디에서 어떻게

68) 한국고전번역원의 DB자료는 후대 연구자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지만 《오주연문》 본래의 면모를 파악하고 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연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과 세부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 보다 《오주연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향후 더욱 보완하기로 한다.

<부록>: “맹자(孟子)에 대한 변증설”⁶⁹⁾

<맹씨의 근원>

맹씨(孟氏)의 근원을 소급해 보면 《통기(通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노(魯) 나라 임금 백금(伯禽) 주공(周公)의 아들의 후예가 다 중(仲)·숙(叔)·계(季)로 씨(氏)를 삼아 오다가 중씨는 맹씨로 고쳤으므로 자손들이 맹으로 씨를 삼았다. 그 뒤에 격공의(激公宜)【혹은 이름을 언박(彦璞)이라 하였다.】란 이가 ‘汎’【음은 장(蔣). 진미공(陳眉公 : 미공은 진계유(陳繼儒)의 호)의 《니고록(妮古錄)》에 “맹격(孟激)의 자는 공의(公宜)로 맹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장(蔣)씨이다.” 하였는데, 혹은 구(仇)씨라 한다.】씨를 맞이하여 맹자를 낳았다. 맹자의 나이 3세 때에 아버지 의(宜)가 졸(卒)하였는데, 그 어머니는 어진 덕이 있었다. 이에 세 차례나 집을 옮겨 다니다가 비로소 학궁(學宮) 부근에 집을 정하고 맹자를 가르치기를 매우 엄하게 하였으며, 맹자가 성장하여서는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에게 수업하였고 졸(卒)하여서는 그 고을의 사기산(四基山) 남쪽에 안장(安葬)되었다.”【선사묘(先師廟)의 향사표(享祀表)를 상고해 보면, “맹자의 아버지는 맹손격(孟孫激) 또는 공의(公宜)라 한다. 추(鄒) 나라 사람이고 맹손씨의 후예 《경화록(景華錄)》에 “추(騶) 나라 사람이다.” 하였다. 주 열왕(周烈王) 6년에 졸하였고, 맹자의 어머니는 장(汎) 혹은 범(人+凡)씨, 혹은 구(仇)씨라 한다. 씨이다. 맹자의 아버지는 원 나라 연우(延祐 인종의 연호) 3년(1316)에 주국공(邦國公)에 봉해지고, 명나라 가정(嘉靖) 9년에 선현(先賢) 맹손씨를 추봉, 계성사(啓聖祠)에 배향되었고,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옹정(雍正) 2년에 숭성사(崇聖祠)로 고쳐 배향되었고, 우리나라 속종 27년에 계성사에 배향되었다.”】하였다.

<맹자의 자와 호>

맹자의 휘(諱)는 가(軻), 자는 자여(子輿), 추(鄒) 나라 사람으로 아버지는 격공의, 어머니는 장씨, 부인은 전(田)씨이고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인데, 기유년에 나서 84세에 졸하였다. 송 나라 원풍(元豐 신종(神宗)의 연호) 6년(1083)에 추국공(鄒國公)으로 추봉, 문묘(文廟)에 배향하였고, 원 나라 지순(至順) 원년에 추국 아성공(鄒國亞聖公)으로 봉하였고, 명나라 경태(景泰 경제(景帝)의 연호) 3년(1452)에 맹자의 사손(嗣孫)에게 오경박사(五經博士)를 세습(世襲)하게 하였고, 가정(嘉靖) 9년에 아성 맹자(亞聖孟子)로 봉하였고, 청나라에서도 그대로 따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태조 7년(1398)에 문묘 서편 둘째 번 자리에 배향하였다. 《한서(漢書)》주(注)에 ‘맹자의 자는 자거(子車)이다.’ 하였고, 고영인(顧寧人, 고염무의 자)의《광운(廣韻)》뒤에 쓴 글에 “《예부운략(禮部韻略)》에서 《광운》의 가(軻) 자의 주(注)를 인용하여 ‘맹자가 일생을 가난에 살다가[居貧] 불우하게 마친[轉軻] 때문에, 이름을 가(軻), 자를 자거(子居)라 했다.’ 하였으나 지금《광운》가 자의 주에 그런 글이 없다.” 하였는데, 위(魏) 나라 왕숙(王肅)의《성증론(聖證論)》에도 ‘맹자의 자는 자거(子居)이다.’ 하였으며 상탄(常坦)의《종사명현전(從祀名賢傳)》에 ‘맹자는 맹손씨의 후예이다.’ 하였다. 명나라 장항(章潢)의《도서편(圖書編)》에 “명나라 홍무(洪武) 5년(1372)에 맹자의 문묘 배향을 철폐시켰다가 1년쯤 되어 다시 복원시켰다.” 하였고, 《패사(稗史)》에 “명 태조가 《맹자》를 읽다가 이루(離婁)편에 ‘임금을 초개(草芥)나 구수(寇讐)처럼 본다.’는 말을 보고 매우 불가하게 여겨 문묘의 배향을 철폐시키려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자는 역신(逆臣)을 부종(附從)한 법률로 단정, 금오(金吾)로 하여금 사사(射死)시키도록 엄명을 내렸는데, 예부상서(禮部尙書) 전당(錢唐)이 널[櫬]을 메고 들어와 가슴을 드러내고 화살을 받으면서 ‘신이 맹가를 위하다가 죽는다면 죽어도 남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므로 태조가 그 정성에 감동되어 태의(太醫)로 하여금 치료케 하였고 배향도 철폐되지 않았다.” 하였다.

<생평>

맹자가 주 열왕(周烈王) 4년 4월 2일에 출생하였는데 《산당사고(山堂肆古)》에 ‘맹자가 주 정왕(周定王) 37년 4월 2일에 출생했다.’ 하였다. 그러나 정왕은 왕위(王位)에 있는 지가 21년뿐이었고 또 공자(孔子)가 출생하기 수십 년 이전이 되므로 이 말은 옳지 않다. 맹자가 졸(卒)한 해로 미루어 보면 출생한 해를

69) < >은 필자가 임의로 제시. 【 】은 경문 하단에 있는 주.

마땅히 주 열왕 4년으로 보아야 한다. 자사의 문인에게 수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응소(應劭)·조기(趙岐)나 《공송자(孔叢子)》에서 모두 ‘직접 자사에게 수업했다.’ 하였다. 그러나 삼가 상고해 보면, 자사가 위후(衛侯)와 만났을 때는 그 나이가 이미 1백세를 넘었고 또 그 뒤로 6년이 되어서야 맹자가 출생하였으니 절대로 자사에게 수업할 수 없는 일이다. 맹자가 주 난왕(周赧王) 26년(서기전 289) 정월 15일에 84세를 1기로 졸(卒)하였다. 《산당사고》에 ‘맹자가 주 난왕 26년 정월 15일에 84세를 1기로 졸했다.’ 하였고 《격치총서(格致叢書)》에 ‘맹자가 주 난왕 26년 11월 15일에 84세를 1기로 졸했다.’ 하였으니, 두 말이 서로 부합되는 듯 하나 정월과 11월이 다르며, 명나라 왕세정(王世貞)의 《완위여편(宛委餘篇)》에 ‘맹자가 주 정왕(周定王) 37년 4월 2일에 출생하여 주 난왕 26년 정월 15일에 84세를 1기로 졸했다.’ 하였으니, 그 당시의 정월 15일은 곧 후세의 11월 15일이다. 경재(敬齋) 이치(李治)의 《고금주(古今註)》에 “《맹자》에 ‘진 중자(陳仲子)의 형(兄)인 대(戴)가 합(蓋) 땅에서 받는 녹(祿)이 만종(萬鍾)이나 된다.’ 하였는데, 대합(戴蓋)은 타는 수레[乘軒]이다.” 하였다. 《맹자외편(孟子外篇)》에 대하여 《일지록(日知錄)》에, “《시경(詩經)》유천지명(維天之命)의 전(傳)에 맹 중자(孟仲子)의 말을 인용하여 ‘천명(天命)의 다함없음[無極]을 말하여 주(周) 나라의 예(禮)를 찬미했다.’ 하였고 《시경》비궁(閼宮) 전에도 맹 중자의 말을 인용하여, ‘비궁은 바로 매궁(祿宮) 후직(后稷)의 어머니인 강원(姜嫄)의 사당이다.’ 하였고, 《정의(正義)》에 조기(趙岐)의 말을 인용하여 ‘맹 중자는 맹자의 종제(從弟)로 맹자에게 배운 자이다 한다.’ 하였고 보(譜)에는 ‘맹 중자는 자사(子思)의 제자이다. 일찍이 맹가(孟軻)와 함께 자사를 섬기다가 뒤에는 맹가에게 배워서 글을 짓고 시(詩)를 논했다.’ 하였는데 모씨(毛氏)가 그 말을 채택 인용하였으니, 이는 맹 중자의 글이 따로 있는 것이다.” 하였고, 육기(陸璣)의 《시초목소(詩草木疏)》에, “자하(子夏)는 노(魯) 나라 사람 신공(申公)에게, 신공은 위(魏) 나라 사람 이극(李克)에게, 이극은 노나라 사람 맹 중자에게, 맹 중자는 조(趙) 나라 사람 손경(孫卿)에게, 손경은 노나라 사람 대모공(大毛公) 모형(毛亨)을 말한다)에게, 대모공은 소모공(小毛公 모장(毛萇)을 말한다)에게 전수했다.” 하였다. 《맹씨보(孟氏譜)》에 ‘중자(仲子)의 이름은 고(皐)이니, 맹자의 아들이다.’ 하였고 《삼천지(三遷志)》에 ‘맹자가 전(田)씨를 맞이하여 중자를 낳았다.’ 하였고 진 미공(陳眉公)의 《니고록(妮古錄)》에도 ‘맹 중자의 이름은 고(皐)로 맹자의 아들인데, 보(譜)에 보인다.’ 하였는데, 주자(朱子)는 조씨(趙氏) 조기(趙岐)의 주(注)를 따라서 ‘중자는 맹자의 종제이다.’ 하였으니, 보(譜)의 말과 같지 않다. 서하(西河) 모기령(毛奇齡)의 《학교문(學校問)》에 “맹자 어머니의 묘(墓) 주위에 맹자의 석상(石像)이 있으니, 묘문(墓門) 사이에 꿇어앉은 모습이다. 묘의 소재는 비록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나 추향(鄒鄉) 사기산(四基山) 남쪽에 있는 맹자의 묘 부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부(王府)의 능(陵)은 대악로(岱岳路) 위에 있고 맹자의 묘(廟)는 그 아래에 있다.” 하였다. 이것이 맹자의 파계(派系)와 생졸(生卒)의 줄거리이다. 위송(衛嵩)은 “맹자가, 각국(各國)을 유력(遊歷)한 선후(先後)를 비록 상고할 수는 없으나 본서(本書《맹자》를 이름)를 가져 증거해 보면, 반드시 송(宋)에서 추(鄒)에 돌아왔다가 추에서 임(任)·설(薛)·등(滕)에 갔고 그 뒤 양(梁)·제(齊)에 간 것이다.” 하였고, 고영인(顧寧人)은 “맹자가 제(齊)·양(梁) 두 나라에 있는 기간은 다 오래지 않았는데, 본서에는 제에 관한 기사가 특별히 많다. 다시 말하면 맹자가 일찍이 제의 경(卿)이 되었으므로, 적어도 4~5년간은 제에 있었을 것이다. 맹자가 양에 간 때는 혜왕(惠王)의 말년(임인)으로 양왕(襄王) 혜왕의 아들이 즉위(임인)하자마자 양에서 떠난 때문에 양에 관한 기사는 많지 않다. 그런데 ‘맹자가 혜왕 35년(을유)에 양에 갔었다.’는 말은, 혜왕의 다음 원년(을유)을 양왕(襄王)의 원년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리고 《사기(史記)》와 《맹자(孟子)》 서(序)에 “양 혜왕 35년에 맹자가 양에 갔었고 그 뒤 23년(정미)째 되어 제(齊)에서 연(燕)을 쳤는데 맹자가 마침 제에 있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 《맹자》에 ‘맹자가 제(齊)에서 경(卿)이 되었다.’한데 대하여 《일지록》에 “맹자가 양(梁)에서는 손[客]이었으므로, 제왕(齊王)에게는 신(臣)이라 칭하고 양왕(襄王)에게는 신이라 칭하지 않았다.” 하였다. 이것이 맹자의 출처(出處)에 대한 줄거리이다.

<《맹자외편》>

《맹자외편》은 《맹자》이외에 있는 외서(外書) 4편으로 성선변(性善辨)·문설(文說)·효경(孝經)·위정(爲正)을 말하는데, 그 글이 넓고 깊지 않으니 맹자의 진작(眞作)이 아닌 것 같으나, 지금 대충 수록하려 한다. 《일지록》에 “《사기》에 오퍼(伍被)가 회남왕(淮南王) 한 고조(漢高祖)의 손자 안(安)을 말한다)에게 대답할 때 《맹자》의 ‘은 주(殷紂)는 천자(天子)였으나 죽을 때는 필부(匹夫)보다 못했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양자운(楊子雲) 자운은 양웅(揚雄)의 자)의 《법언(法言)》수신(修身)에 《맹자》의 ‘대저 뜻이 있어도 이르지 못

하는 자는 있으나 뜻이 없이 이르는 자는 있지 않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환관(桓寬)의 염철론(鹽鐵論)에 《맹자》의 ‘내가 하광(河廣)을 보고 선왕(先王)의 남은 덕화가 지극함을 알았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또 《맹자》의 ‘요순(堯舜)의 도(道)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건만 사람이 도를 생각지 않는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주례(周禮)》대행인(大行人) 주에 《맹자》의 ‘제후(諸侯)에게는 왕사(王事 제후가 왕에게 조회하는 일)가 있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송나라 포조(鮑照)의 하청송(河淸頌)에 《맹자》의 ‘천년 만에 성인(聖人)이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마치 아침이 가면 저녁이 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맹자》의 ‘그림자를 그리니, 그 본형(本形)을 상실한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양서(梁書)》처사전서(處士傳序)에 《맹자》의 ‘지금 사람들은 작록(爵祿)에 있어, 얻으면 금방 살아난 듯하고 잃으면 금방 죽는 듯한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광운(廣韻)》규 자(圭字) 주에 《맹자》의 ‘64서(泰)가 1규(圭)가 되고 10규(圭)가 1홉[습]이 된다.’는 말이 인용되었고, 《맹자집주(孟子集註)》가운데 정자(程子)가 《순자(荀子)》에서 ‘맹자가 세 차례나 제왕(帝王)을 만나고도 행사(行事)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므로 문인(門人)이 의아해하자 맹자가, 「내가 우선 제왕의 사심(邪心)부터 다스려 주어야겠다.」 했다.’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지금의 《맹자》에 이런 말들이 한 대문도 없으니, 이른바 《맹자외편》의 글이 아닌지 모른다.”하였다. 그리고 《사기》색은(索隱)에 인용된 황보밀(皇甫謐)의 말에 “맹자가 ‘우(禹)는 석뉴(石紐)에서 났는데, 서이(西夷) 사람이다.’ 했다.”하였는데, 아마 《맹자》에 ‘순(舜)은 제풍(諸馮)에서 났다.’는 말의 잘못된 것 같으며,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맹자》가 11편이다.’ 하였고, 《풍속통(風俗通)》에 ‘맹자가 중(中)·외(外) 11편의 글을 지었다.’ 하였으나 지금에 전해지지 않으니, 이른바 《맹자외서》 4편은 이미 없어진 것이다. 《일지록》에 “맹자가 《논어》에 있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 29가지인데, 지금 《논어》에 보이는 것은 8가지로서 【예를 들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을에 인후(仁厚)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과 “임금이 막 흥(薨)하였을 적에는 모든 국정(國政)을 수상(冢宰)의 결재에 따른다.”는 것과 “위대하다, 요(堯)의 임금됨이여.” 한 것과 “제자들아, 북(鼓)을 울려 성토(聲討)하라.”는 것과 “오당(吾黨)의 사(士)가 광간(狂簡: 뜻은 크나 실천이 소홀한 자)하다.”는 것과 “향원(鄉愿: 근심한 척하여 남의 추앙을 받는 자)은 덕을 해치는 적(賊)이다.” 한 것과, “그럴 듯하면서도 아닌 자를 미워한다.”는 유이다.】 그 인용된 바가 《논어》와 대동소이하다. 그렇다면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 부자(夫子 공자를 말한다)의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중니(仲尼)가 간 뒤에 그 은미한 말들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하였다. 《일지록》에 “《맹자자양(孟子字樣)》에 ‘구경(九經 여기는 역(易)·시(詩)·서(書)와 3전(傳), 3예(禮)를 말한다)과 《논어》는 다 석경(石經) 둘에 새긴 경서(經書)를 근거로 한 때문에 자체(字體)가 변하지 않았으나 《맹자》의 자체는 많이 지금 것에 가까우니, 【예를 들면, 지(知) 자는 지(智) 자로, 열(說) 자는 열(悅) 자로, 여(女) 자는 여(汝) 자로, 피(辟) 자는 피(避) 자로, 제(弟) 자는 제(悌)자로, 강(疆) 자는 강(強) 자로 많이 써서《논어》와는 다르다.】 이는 위(魏), 진(晉) 이하 오랫동안 전록(傳錄)해 온 데서 변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석경(石經)의 공로 또한 적지 않다. 또 《당서(唐書)》에 ‘빈주(邠州)는 이전에는 빈주(邠州)로 써 오다가 개원(開元) 13년(725)에 빈(邠) 자 모양이 유(幽) 자와 비슷하다 하여 빈(邠) 자로 고쳤다.’ 하였는데, 지금《맹자》에만 빈(邠)자로 써여졌다.”하였다. 《정자통(正字通)》에 “주희(朱熹)의 아버지 이름이 송(松) 자이나 《강목(綱目)》에서 아예 휘(諱)하지 않았는데, 송 광종(宋光宗)의 휘인 돈(惇) 자에 대해서는 사서집주(四書集註)에 돈 자가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맹자》호변(好辯)장에 돈전(惇典)이 후전(厚典)으로 고쳐진 것은 그 당시 그 문인이 임금 앞에 글을 기록해 바칠 때 돈 자를 휘(諱)해버린 때문이다.”하였다.

<경문 내용>

《맹자》의 ‘필유사언이물정심(必有事焉而勿正心)’에 대하여 《일지록》에 “예 문절(倪文節 문절은 시호, 이름은 사(思))이 ‘필유사언이물망 물망 물조장(必有事焉而勿忘 勿忘 勿助長)’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전사(傳寫)의 착오에 의하여 망(忘) 자로 써야 할 것을 정심(正心) 두 자로 씌어진 것이다.’ 하였다. 말하자면, 호연(浩然)의 기(氣)를 기르려 할 적에는, 즉 목표로 하는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이미 잊지 않았으면 또 미리 조장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망(勿忘)을 두 구절로 겹쳐 쓴 것은 작문법(作文法)의 한 가지이다.”하였다. 경재(敬齋) 이치(李治)의 《고금주(古今註)》에 “《맹자》에 ‘차비화자, 무사토친부, 어인심독무교호(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校乎)’라 하였는데, 비(比) 자는 본시 친비(親比)라는 비 자의 뜻이지만 미친대[及]의 뜻으로 풀이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시체가 화삭(化鑠) 썩고

삭는다는 뜻)하는 시기에 미쳐[比及]로 보아야 하는데, 회암(晦庵 주희(朱熹)의 호)이 비자를, ‘죽은[化] 이를 위[爲]한다’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맹자》의 ‘위장자절지(爲長者折枝)’에 대하여 주자집주(朱子集注)에 ‘어른을 위하여 초목(草木)의 가지를 꺾어 준다.’로 풀이하였는데, 《문선(文選)》광절교론(廣絕交論)의 ‘포복위이 절지지치(匍匐逶迤折枝舐痔)’의 주를 상고해 보면, 조기(趙岐)의 맹자주(孟子注)를 인용하여 ‘절지는 굽는 것[撝攢]이다.’로 풀이하였고 또 《예기(禮記)》의 경역소지(敬抑擻之) 주에도 ‘절지는 굽는 것[爬擻]이다.’ 하여, 후세에 이를 변론하는 선비들이 많다.”하였다. 《일지록》에 “《맹자》의 인이치지장악지간(引而置之莊嶽之間) 주에 ‘장악은 제(齊)의 가리(街里)의 이름이다.’ 하였는데, 장은 가로(街路)의 이름이고 악은 마을의 이름이다. 《좌전(左傳)》양공(襄公) 28년 조를 보면, 득경씨지목백거어장(得慶氏之木百車於莊) 주에 ‘장은 여섯 굴대[六軌]가 달릴 만한 길이다.’ 하였고, 이어 반진우악(反陳于嶽) 주에 ‘악은 마을의 이름이다.’ 했다.”하였다.

<정전제>

《맹자》의 유위신농지언(有爲神農之言) 주에, “허행(許行)은 사마천(史馬遷)이 말한 농가류(農家類)이다.”하였고, 김인산(金仁山) 인산은 원 나라 김이상(金履祥)의 호)은 “태사공(太史公 사마천을 말함)의 《육가이동(六家異同)》에는 농가류가 언급되지 않았고, 반고(班固)의 《한서》예문지(藝文志)에 구류(九流)로 분류하여 비로소 농가류가 언급되었다.”하였는데, 주자집주(朱子集註)에서 우연의 착오를 미쳐 고치지 못한 것이다. 송나라 손곡상(孫穀祥)의 《야로기문(野老紀聞)》에 “제(齊) 나라 지방에 고(蠱)의 유가 있다. 그 중에 큰 지렁이(蚯蚓)를 사람들이 곡선(曲善)이라 하는데, 땅을 주름잡아[擘地]서 다니고 울적에는 소리가 난다.”하였으니, 《맹자》에 ‘나는 반드시 중자(仲子)를 거벽(巨擘)으로 여긴다.’는 거벽은 바로 큰 지렁이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인이후충기조(螭而後充其操) 주에 ‘거벽은 엄지손가락이다.’ 한 말은 잘못으로 본다. 또 《맹자》에 ‘금지여양묵변자 여추방돈 기입기립 우종이초지(今之與楊墨辨者, 如追放豚 既入其苙, 又從而招之)’라 한 데 대하여 말하는 이가 ‘입(苙)은 우리[關]이다.’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입은 백지(白芷 향초(香草) 이름)의 이명(異名)으로 돼지가 즐겨 먹는 풀이다. 즉 이미 제 갈 데로 가버린 양묵(楊墨)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는 것은, 사설(邪說)을 잘 퇴치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서하(西河) 모기령(毛奇齡)이 “정전제(井田制)가 황제(黃帝) 때에 시작된 것은 예부터 그 명문(明文)이 있는데 주씨(朱氏 주희(朱熹)를 이름)만이 ‘상(商) 나라에서 맨 처음 정전제를 실시했다.’ 한다. 그러나 《시경》신남산(信南山)의 ‘저 남산(南山) 밑은 본래 우(禹)가 다스렸다.’는 것은 물론, 《좌전》애공(哀公) 원년에 ‘하 소강(夏少康)이 겨우 밭 1성(成 사방 10리를 말함)에 군사 1여(旅 5백 명을 말함)가 있었다.’는 것과 《예기》왕제(王制)의 ‘3부(夫)가 1옥(屋)이 되고 3옥이 1정(井)이 된다.’는 것도 다 우(禹)의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서경》(書經)익직(益稷)에 ‘우(禹)가 「내가 아홉 개의 내[川]를 터서 네 개의 바다로 흐르게 하고 견(畎)과 회(澮)를 파서 내[川]로 흐르게 했다.」한다.’ 하였고, 《논어》태백(泰伯)에도 ‘우(禹)는 구(溝)와 혁(洫)에 힘을 다했다.’ 하였으니, 정전제는 분명 하(夏) 나라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맹자》를 주해(注解)하면 서, 정전제가 상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하였다. 지적(地積)은 보(步)로는 기준할 수 있으나 척(尺)으로는 기준할 수 없다. 주(周) 나라 제도에 6척(尺)을 1보(步)로, 1백 보를 1묘(畝)로 하였으므로 상(商) 나라에서는 반드시 6척을 1보로, 70보를 1묘로 하였을 것이니, 지금 제도에서 6척을 1궁(弓)으로, 2백 40궁을 1묘로 하는 비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보만 궁으로 고치고 척은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지적(地積)의 장단(長短)을 전혀 척만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고정림(顧亭林)이 《맹자》의 ‘그 결과는 모두 10에서 1을 받는 세제(稅制)이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였다. “예로부터 전부(田賦)의 제도는, 사실 우(禹)가 수토(水土)를 정리한 뒤에 상·중·하 등의 토질(土質)을 참작, 전부를 부과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후세의 왕자(王者)들은 이것을 그대로 준용(準用)해 왔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경》신남산(信南山)에 ‘저 남산 밑은 본래 우(禹)가 다스리던 곳, 잘 개간된 들판과 습지에 종손(宗孫)이 와서 밭갈이하누나. 경계를 정하고 도량을 치니, 두둑이 남과 동으로 이어졌네.’ 하였으니, 그렇다면 주(周) 나라에서 경지를 정리한 것도 끝내 우(禹)의 유법(遺法)인 것이다. 《시경》신남산에 대한 《공씨정의(孔氏正義)》에도 ‘구승(丘乘)의 법은 우(禹)가 실시한 것이다.’ 하였다. 《맹자》에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로 공법(貢法)을, 은(殷) 나라 사람은 70묘로 조법(助法)을, 주(周) 나라 사람은 1백 묘로 철법(徹法)을 실시했다.’ 하였는데, 정전(井田)의 제도는 1정(井)의 경지(耕地)를 아홉으로 구획(區劃)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순(蘇洵)이 ‘만부(萬夫)의 경지는 방(方) 33리(里) 반(半)이 되는데, 그 사이에는 천(川)과 노(路)

가 한 개씩이고 회(澮)와 도(道)가 아홉 개씩이고 혁(洫)과 도(涂)가 1백 개씩이고 구(溝)와 진(畛)이 1천 개씩이고 수(遂)와 경(徑)이 1만 개씩이니, 하(夏) 나라에서 꼭 50묘씩으로, 은나라에서 꼭 70묘씩으로, 주나라에서 꼭 1백 묘씩으로 정하였다면 한 왕자(王者)가 새로 나올 적마다 반드시 진도(畛涂)를 고치고 구혁(溝洫)을 바꾸고 도로(道路)를 옮겨야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괜히 번잡스럽기만 하고 백성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니 어찌 그리하였겠는가.’ 하였다. 대저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 시대에 백성에게 부세(賦稅)를 거둬들이는 데의 차이점은 공법·조법·철법의 명칭이 다를 뿐, 50묘·70묘·1백 묘의 다소(多少)에 있지 않다. 50묘나 70묘나 1백 묘나 하는 것은 사용되는 장척(丈尺)이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경지가 많아지거나 적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모두 10에서 1을 받는 세제(稅制)이다.’ 한 것이다. 옛적에 새로 나온 왕자(王者)는 오래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服色)을 바꾸고 도수(度數)를 달리했다. 《예기》왕제(王制)에 ‘옛적에는 주척(周尺)으로 8척(尺)을 1보(步)로 하였고, 지금의 주척은 6척 4촌(寸)을 1보로 한다.’ 하였으니, 그 당시 시세에 맞추어 제정하였던 점도 들 수 있다. 한 나라 때에는 토지는 넓고 인구는 드문 때문에 그 묘수(畝數)가 많았고, 은·주 때에는 토지가 바뀌고 인구가 많은 때문에 그 묘수가 점차 적어져서 한 나라 때의 1묘를 2묘로 만들었으니, 그 명칭은 다르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좌전》성공(成公) 2년에 ‘국좌(國佐)가 진(晉) 나라 사람에게, 「선왕(先王)이 천하의 토지를 정리, 그 토질에 맞는 식물을 재배하여 그 이익을 얻도록 했다.」한다.’ 하였으니, 삼대 시대의 왕자가 어찌 것처럼 번잡하기만 하고 백성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일을 했겠는가?”

<효와 상례>

《맹자》의 ‘부모에게 불순(不順)한 사람이다.’ 한 데 대하여 《일지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서경》요전(堯典)에 ‘요(堯)가 「나도 들었지만 어떠하더냐?」 묻자 사악(四岳)이 「고수(瞽瞍)의 아들로 아버지는 미련하고 어미는 사납고 아우 상(象)은 교만한데도 능히 효우(孝友)로써 화합, 그들로 하여금 차츰 선(善)으로 자치(自治)하여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했다.」 대답했다.’ 하였으니, 요(堯)가 순(舜)을 등용한 시기는 고수가 마음을 돌린 이후가 된다. 그런데 지금 《맹자》에 ‘요(堯)가 아홉 아들과 두 딸로 하여금 백관(百官)·우양(牛羊)·창름(倉廩)을 가져 순(舜)을 초야(草野)에서 섬기도록 하였으나 …… 순은 자신이 부모에게 불순하였다 하여, 마치 돌아갈 데 없는 궁한 사람의 심정과 같았다.’ 하였으니, 이는 사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성인(聖人)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즉 천하의 자식 된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짐이 그려야만 큰 효(孝)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후세의 선비들이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두 형수(兄嫂)에게는 나의 침실을 맡기겠다.’는 상(象)의 터무니없는 말도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이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예기》단궁(檀弓)에 ‘공자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때문에 그 묘(墓)를 알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선유(先儒)들도 이미 의심해 왔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한 가지 증언이 있다. 즉 《중용(中庸)》에 ‘자식 된 도리로 말하면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부자(父子)는 일찍이 아버지를 모셨던 것이다. 또 《맹자》에 ‘먼저는 선비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상(喪)을, 뒤에는 대부(大夫)의 신분으로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먼저는 삼정(三鼎 선비의 제례(祭禮))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뒤에는 오정(五鼎 대부의 제례)으로 어머니의 제사를 모셨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공맹(孔孟)이 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치에 가까운 말이다. 《맹자》의 ‘자제장어노(自齊葬於魯)’에 대하여 《일지록》에 “맹자는 ‘제(齊)에 있다가 노(魯)로 가서 장사(葬事)했다.’는 것은 장사를 말한 것이고 상사(喪事)를 말한 것이 아니다. 즉 개장(改葬)을 말한 것이다. 《의례(儀禮)》에 ‘개장할 적에는 시마복(緦麻服)을 입었다가 장사가 끝나면 곧 벗어버린다.’ 하였으므로, 맹자가 다시 제(齊)로 돌아와 영(嬴) 땅에 머물렀고 또 충우(充虞)가 그 짚을 내어 물었던 것이다. 만약 분상(奔喪)하였다가 돌아올 만큼 급박한 시기였다면 장사가 끝나자마자 곧 제경(齊卿)으로 출사(出仕)하였을 것이고 또 충우도 말을 물어볼 만한 짚이 없었을 것이니, 이는 전(傳)에 말한 대로 ‘공자(孔子)가 석 달 동안 출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이 초조하였다.’는 예와 같다고 하겠으나, 자신이 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등(滕) 나라의 세자(世子)를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하였다. 《맹자》에 ‘삼숙이출주(三宿而出晝)’라 한 데 대하여 주자는 ‘마땅히 획(晝)자로 보아야 한다. 제 나라에 획읍(晝邑)은 있으나 주자가 든 지명(地名)은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맹자》에 의심난 곳이 어찌 이뿐이랴. 지금 그 대충만 제시하는 바이다.

<맹자제자>

맹자의 제자들 가운데 상고할 만한 이로는 《폭서정집(曝書亭集)》에 “악정자 극(樂正子克)은 송 나라 정화(政和) 연간에 이국후(利國侯)【조기(趙岐)가 “노(魯)의 신하이다.” 하였다.】를, 만자 장(萬子章)은 박흥백(博興伯)을, 공손자 추(公孫子丑)는 수광백(壽光伯)을, 호생자 불해(浩生子不害)【호생자를 혹은 고자(告子)라 한다.】는 동아백(東阿伯)【조기가 “제(齊) 나라 사람이다.” 하였다.】을, 맹 중자(孟仲子)는 신채백(新蔡伯)【조기가 “맹자의 종제(從弟)이다.” 하였다.】을, 진자 진(陳子鱗)은 봉래백(蓬萊伯)을, 충자 우(充子虞)는 창락백(昌樂伯)을, 옥려자 연(屋廬子連)은 봉부백(奉符伯)을, 서자벽(徐子辟)은 선원백(仙源伯)을, 진자 대(陳子代)는 기수백(沂水伯)을, 팽자 갱(彭子更)은 뇌택백(雷澤伯)을, 공도자(公都子)는 평음백(平陰伯)을, 함구자 몽(咸丘子蒙)은 수성백(須城伯)을, 고자(高子)는 사수백(泗水伯)【조기가 “제 나라 사람이다.” 하였다.】을, 도자 응(桃子應)은 교수백(膠水伯)을, 분성자 괄(盆城子括)은 내양백(萊陽伯)을 추증(追贈)하였고 또 등자 갱(滕子更)이 있다.”하였다. 오내(吳萊)가 “맹자의 학문은 증자(曾子)와 자사(子思)에게서 나온 것인데, 순경(荀卿) 같은 이도 덩달아서 ‘세속의 구유무유(溝猶贅儒) 모두 어리석다는 뜻’한 자들이 잔뜩 떠들어대면서 선왕(先王)을 대충 본받았답시고 지난 것을 들어 말을 지어내어 그 정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과 달라, 치법(治法)에 있어 후왕(後王)을 본받을 뿐이다.’ 조롱하였으니, 구유무유한 자들이란 바로 만장(萬章)·공손추(公孫丑) 등을 지적한 말이다. 순경은 전국 시대에서 대유(大儒)란 호칭을 받았으면서도 같은 문(門)에서 호(戶)를 달리한 바가 이와 같았다.”하였다. 《일지록》에 “조기(趙岐)가 주(注)한 《맹자》를 상고해 보면 ‘계손(季孫)과 자숙(子叔)은 엄연히 두 사람으로 모두 맹자의 제자이다. 즉 계손이 맹자가 시자(時子)의 호의를 사절하려는 것을 알고 기어이 맹자로 하여금 사절하지 않도록 종용하기 위하여, 「이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숙도 이해할 수 없다고 내심 의아해하면서, 시자의 호의를 받아들였으면 하고 있습니다.」한 것이고 사기위정(使己爲政) 이하는 맹자의 말이다. 했다.”하였다. 선공(宣公) 손석(孫奭)도 이 설을 따른 때문에, “정화(政和) 5년(1115)에 태상시(太常寺)의 건의에 따라 계손을 풍성백(豐城伯)으로 자숙을 승양백(乘陽伯)으로 추증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집주(集註)가 나온 뒤로부터 비난이 시작되어 세상에서 조(趙)씨의 설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오입부(吳立夫) 입부는 원 나라 오내(吳萊)의 자)가 《맹자제자열전(孟子弟子列傳)》2권을 찬(撰)한바 그 전서(全書)는 비록 전해지지 않지만 그 서(序)에 ‘맹자의 제자가 19명이다.’ 하였으니, 이는 주자의 설을 따라서 계손·자숙 두 사람을 삭제하지 않고 거기다가 등갱(滕更)을 더 넣어 19명의 수로 되었다. 《맹자》진심(盡心)편을 상고해 보면 공도자(公都子)가 ‘등갱이 문하(門下)에 있을 때’라 말한 대문에 조기가 주하기를 ‘등갱은 등 나라 임금의 아우로 맹자를 찾아와 배웠다.’ 하였으니, 맹자의 제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송나라 때 태상시(太常寺)의 건의에 어찌 등갱에게만 작호(爵號)가 추증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사기》색은(索隱)에는 ‘공명고(公明高)는 맹자의 제자이다.’ 하였고《광운(廣韻)》주에는 ‘이루(離婁)는 맹자의 문인이다.’ 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말이므로 군자(君子)가 믿지 않는다. 그리고 《광운》주의 구(丘)자 해석에 ‘제(齊) 나라에 만구(曼丘)가 있었다.’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맹자》7편에 그런 글이 보이지 않으니, 만구를 맹자의 제자라 해야 할는지 제자가 아니라 해야 할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하였는데, 이는 죽타(竹垞) 주이준(朱彝尊)의 말이다. 고영인(顧寧人)이 조기(趙岐)의 말을 인용하여, “고자(告子)의 이름은 불해(不害)로 유자(儒者)와 묵자(墨者)의 도(道)를 겸치(兼治)한 사람인데, 일찍이 맹자에게 배웠으나 성명(性命)의 이치를 완전히 통하지 못하였고 또 고자(高子)는 제(齊) 나라 사람으로 맹자에게 배워 도(道)에 유의하였으나 정확하지 못한 채 그만 다른 학술을 배웠고, 또 분성괄(盆城括)은 일찍이 맹자에게 배우려 하여 도를 물었으나 통하지 못한 채 그만두었다 하였는데, 송 휘종(宋徽宗) 정화(政和) 5년에 모두 작호가 추증된 것은 맹자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사기》색은에 ‘만장·공명고 등은 다 맹자의 문인이다.’ 하였고, 《광운》 주에도 ‘이루(離婁)는 맹자의 문인이다.’ 하였으나 어디서 근거된 말인지 알 수 없다.”하였다. 《회남자(淮南子)》를 상고해 보면, “황제(黃帝)가 현주(玄珠)를 잃어버리고는 이주(離朱)와 첩철(捷剡)을 시켜 찾도록 했다.”하였고, 그 주에 ‘이 두 사람은 다 황제의 신하이다.’ 하였으며,《포박자(抱朴子)》에 “팽조(彭祖)의 제자에 이루공(離婁公)이 있었다.”하였는데, 이는 다 신빙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주이준이 “반씨(班氏 반고(班固)를 말한다)의 《고금인표(古今人表)》를 보면 ‘맹자가 제2등에, 그 제자 공손추(公孫丑)가 제3등에, 만장(萬章)·악정자(樂正子)·고자(告子)·고자(高子)가 제4등에, 서자(徐子)가 제5등에 들고 나머지는 참여되지 못한다.’ 했다.”하였다.

내가 상고해 보건대, 왕충(王充)이 자맹론(刺孟論)을, 풍휴(馮休)가 산맹론(刪孟論)을,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의맹론(疑孟論)을, 이태백(李泰伯)이 비맹론(非孟論)을, 조이도(晁以道)가 저맹론(詆孟論)을, 황차신(黃次辰)이 평맹론(評孟論)을, 순경(荀卿)이 또 비맹론(非孟論)을 소식(蘇軾)이 변맹론(辨孟論)을, 여윤문(余允文)이 존맹변(尊孟辨)을 지었다. 《맹자》 7편은 조기가《맹자》를 주(注)하면서 7편을 각 상하(上下)로 갈라놓아 모두 14편이 되었고, 당 나라 육선경(陸善經)이 다시 7편으로 환원시켜 놓았는데, 송나라 대중상부(大中祥符 진종(眞宗)의 연호) 연간에 손석(孫奭)이 조서를 받들어 《맹자정의(孟子正義)》를 찬(撰)할 때 조기의 설을 주장하였다. 이전의 《사기》예문지(藝文志)에는 모두 《맹자》를 유가(儒家)에 넣었고, 진직재(陳直齋 직재는 진진손(陳振孫)의 호)의 《서록해제(書錄解題)》에 비로소 《논어(論語)》와 함께 경전류(經典類)에 넣었는데, 마귀여(馬貴與 귀여는 마단림(馬端臨)의 자)가 지은 《문헌통고(文獻通攷)》의 경적고(經籍考)에서 그대로 따랐으며, 지금은 《역(易)》·《서(書)》·《시(詩)》·《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좌전(左傳)》·《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논어(論語)》·《효경(孝經)》·《이아(爾雅)》와 함께 십삼경(十三經)으로 되었다.

<성선과 인>

양씨(楊氏)가 말하기를 “맹자가 세교(世教)에 큰 공로를 준 것은, 바로 사람의 본래 선(善)한 마음을 들어 인도한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샘에 빠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말로 사람의 측은(惻隱)해하는 마음을 지시하고, 멀리서 부르거나 발길로 차서 주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말로 사람의 수오(羞惡)하는 마음을 지시하고, 어린이도 자기의 아버지를 친애할 줄 안다는 말로 사람의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지시하고, 처(妻)와 첩(妾)이 서로 붙들고 흐느껴 운다는 말로 사람의 염치(廉恥)를 지시하고, 외물(外物)과 접하지 않은 아침에는 청명(淸明)한 기(氣)가 발로된다는 말로 누구나 선한 마음이 있음을 지시하고, 장사(葬事)를 너무 후하게 치른 듯하다는 충우(充虞)의 말에 혹 아버지의 시체를 구렁에 버린 뒤 썩는 것을 보게 되면 이마에서 진땀이 절로 솟는다는 말로 사람의 진정(眞情)을 지시하고, 죽으러 가는 소[牛]의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다는 제 선왕(齊宣王)의 말에 백성의 안보를 원칙으로 해야 함을 감동시켰으며, 풍악을 좋아하고 용맹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한다는 말에, 백성들과 함께 좋아해야 한다고 유도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능을 들어 바른 개발점을 지시하여, 불인(不忍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惻隱)을 말한다)을 미루어 소인(所忍 하지 않을 일을 차마 하는 것. 곧 인의 반대를 말한다)을 버리게 하고 불위(不爲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 것. 곧 수오(羞惡)를 말한다)를 미루어 소위(所爲 당연히 해야 할 일)를 확충(擴充)시키게 한 것이다. 또 도덕(道德)을 논할 적에는 으레 요순(堯舜)을 지칭하였고 정벌(征伐)을 논할 적에는 으레 탕무(湯武)를 들어 ‘사람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차마하지 못하는 정사(政事)를 시행한다.’는 말로 묶어 오패(五霸; 제 환공(齊桓公)·진 문공(晉文公)·진 목공(秦穆公)·송 양공(宋襄公)·초 장왕(楚莊王))의 패도(霸道)를 비루하게 여겼고, 양(楊)·묵(墨)을 금수(禽獸)에 비유하여 ‘처음에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정사(政事)를 망친다.’는 말로 묶어 놓았다. 끝으로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말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과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장성해서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함이다.’는 말과 ‘지금 제(齊)를 천자 나라로 만들자면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다.’는 말들도 어느 것인들 이 본심을 가져 운용한 바가 아니겠는가.”하였다.

<참고문헌>

-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문화사, 1959
 張華 지음·양동식 역주, 《박물지》, 홍익출판사, 1998
 김영진,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소명출판, 2005
 김영진, 《연행의 사회사: 조선 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5
 오오키 야스시 지음·노경희 옮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물들》, 책과 함께, 2007

段成式 지음·김영식 옮김, 《유양잡조》, 소명출판, 2011

김명호 등, 《19세기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필기류 소재 지식정보의 양상》, 학자원, 2011

이철, 《조선의 백과사전을 읽는다》, 알마, 2011

황지영, 《명청출판과 조선전파》, 시간의 물레, 2012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정신문화》, 1982, 제12집.

임영선, <오주 이규경의 실학사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2.

신병주, <19세기 중엽 이규경의 학풍과 사상>, 《한국학보》, 1994, 제75기.

정경주, <오주 이규경과 詩家點燈 의 詩學範疇에 대하여>, 《부산한문학연구》, 1995, 제9기.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18, 19세기 경화세족 문화의 한 단면>, 《민족문화사연구》, 1996, 제9호.

박성규, <격물치지 개념의 연원>, 《규장각》, 2001, 제24집.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2004, 98집.

윤대식, <《日知錄》에 내포된 중국실학의 정치적 의도와 조선으로의 유입 과정>, 《동양학》, 2004, 제8기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智水拈筆》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2005, 제36집.

민족문화추진회, <오주연문장전산고 교감 및 정리 사업 종합보고서>, 200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학출판부, 2006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연구》, 2007, 제39집.

박상영·안상우, <五洲李圭景의 생애 연구>, 《민족문화》, 2008, 제31기.

조계영, <조선의 중국서책의 구입과 장황의 변화>, 《한국문화》, 2009, 제48집

김채식,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나타난 차기체 필기의 특징>, 《정신문화연구》, 2010, 제33권, 제3호.

김영진,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欽英과 齋亂藁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010, 제30집.

김채식,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저술성향과 비교검토>, 《동아시아고대학》, 2011, 제26집.

김채식,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2013, 제31집.

신병주,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오주연문장전산고>, 《진단학보》, 2014, 제121집

한미경, <중국 유서의 편찬과 분류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14, 제59집.

임영걸, <오주 이규경 실학의 한 방향: 세세 인식에서 국제통상론으로>, 《한문학보》, 2014, 제28집.

岳永, <清代笔记观初探>, 華東師範大學博士論文, 2014.

劉道勝, <寄園寄所寄>의編撰特點及文憲價值, 《古籍研究》, 2004.

歐明俊, <明清의筆記小品>, 《文史知識》, 2001, 第3期.

劉興均, <試論古書與校讀與名物考證的關係>, 《西南師範大學學報》, 1996, 第2期.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Index.jsp>